

NEWS

한일경제협회 소식

■ CONTENTS

2016년도 협회사업 안내

- 제48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안내 ▣ 2016. 5. 16~5. 18 ▣ 1
- 2016년도 회장단회의(이사회) & 제35회 정기총회 ▣ 2016. 2. 17 ▣ 2
- 제17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개최안내 ▣ 2016. 3. 8~3. 9 ▣ 3
- 2016년도 한일경제협회 주요 사업 계획(안) 4

2015년도 하반기 사업실적

- 제22회 한일고교생교류캠프 ▣ 2015. 7. 27~7. 31 ▣ 5
- 제16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 ▣ 2015. 8. 27~8. 28 ▣ 7
- 제14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
제22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 ▣ 2015. 11. 3~11. 5 ▣ 12
- 제13회 회원사간담회(일본경제 전문가 초청 세미나) ▣ 2015. 9. 18 ▣ 22
- 주한일본대사 초청 협회 회장단 간담회 ▣ 2015. 11. 05 ▣ 23
- 한일·일한경제협회 정례업무협의 ▣ 2015. 12. 9~12. 10 ▣ 24

일본 주요 산업별 시장 동향

- 자동차부품 25
- 의료기기 38
- 소재·부품 51

기획기사

- 신흥국과의 통화스와프 적극 추진해야 63

일본경제동향

- 65

신규 회원사 소개

- 80

한일 통계

- 한일 교역·인적교류 현황 통계 81

회원가입 안내

- 82

한일경제협회 소식 제33호

발행인 | 김 윤

편집위원장 | 이종운

편집위원 | 조덕묘·김정호·홍소영

간사 | 서광현·이유경

발행 | 사단법인 한일경제협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31길18-4
한일재단빌딩 4F
TEL/ 02-3014-9888
FAX/ 02-3014-9899

인쇄인 | 강봉선

인쇄 | 웃고문화사
강원도 원주시 배말길 103-2
TEL/ 033-748-6577
FAX/ 033-748-5477

2016년도

제48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안내

THE 48th KOREA-JAPAN BUSINESS CONFERENCE

1969년 이래 한일 양국 경제계를 대표하는 기업·단체의 최고 경영자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매년 정례적으로 만나 양국 기업 간 교류를 증진하고, 한일 간의 경제현안 사항에 대한 진솔한 논의를 통해 양국 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오고 있는 한일경제인회의가 오는 2016년 5월 16일(월)~18일(수)까지 일본 도쿄 호텔오쿠라東京에서 개최됩니다.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사업으로 개최되었던 제47회 한일경제인회의('15.5 서울)에서 307명에 이르는 양국 경제인들은 새로운 50년을 동반성장·공동번영의 시대로 만들어 나가자는데 합의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성장발전이 일본의 성장발전을, 일본의 발전이 한국의 발전을 이끌어 온 것처럼, 앞으로도 이러한 상호 발전을 견인해 나가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저성장의 시대를 돌파해 나가기 위해, 새로운 50년의 출발점인 2016년을 진정한 '새로운 한일우호·경제협력의 원년'으로 삼아, 미래지향적인 新한일경제협력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한일관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경제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제48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요 ▣

◇ 기 간	2016년 5월 17일(화)~18일(수) * 16일 단장단 예방
◇ 장 소	일본 도쿄 호텔오쿠라東京
◇ 테 마	한일 우호·경제협력 원년, 함께 손잡고 새시대를 열어가요! - 세션1 : 아시아 세기에 있어서의 한일 신시대 - 세션2 : 한일우호·경제협력 원년 ~향후 50년을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구축
◇ 규 모	한일 양국 기업(단체)의 최고경영자 및 임원 300여명
◇ 주 최	(사)한일경제협회, (일사)일한경제협회
◇ 협 력	산업통상자원부,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 문의 : 김정호 부장 TEL : 02-3014-9877 / E-mail : jhkim@kje.or.kr
서광현 대리 TEL : 02-3014-9886 / E-mail : khsuh@kje.or.kr

2016년도 회장단회의(이사회) & 제35회 정기총회 개최안내

- 2016년 2월 17일(수) / 서울 롯데호텔 -

2016년도 회장단회의(이사회) & 제35회 정기총회 개최(안)

□ 일 시 : 2016년 2월 17일(수)

- 이 사 회 : 2016. 2. 17(수) 10:30~11:20

- 정기총회 : 2016. 2. 17(수) 11:30~13:00 (오찬 포함)

□ 장 소 : 서울 롯데호텔

- 이 사 회 : 롯데호텔(소공동) 36층 피콕스위트

- 정기총회 :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 부의안건 :

- 이 사 회 : 제1호 의안 : 2015년도 사업실적 보고 및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2016년도 사업계획(안)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제35회 정기총회 개최(안)의 건

- 정기총회 : 제1호 의안 : 2015년도 사업실적 보고 및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2016년도 사업계획(안)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임원선임(안) 승인의 건

※ 문의 : 서광현 연구원 TEL : 02-3014-9886 / E-mail : khsuh@kje.or.kr



제17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개최안내

– 2016. 3. 8~9 / Hotel Okura Tokyo –

우리 협회와 한국무역협회, 일본의 일한경제 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17회 한일신산업 무역회의가 2016년 3월 8일(화)부터 9일(수)까지 이틀간 호텔오쿠라도쿄(Hotel Okura Tokyo)에서 개최된다.

한일신산업무역회의는 한일경제인회의 산하 전문위원회로서 한일경제인회의 의제 상정

을 위한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한일 간 산업·무역·투자 등 공통의 과제에 대한 실천적 문제 해결형 회의로, 한일경제인회의를 통해 양국 정부 및 관계기관 등에 정책 제언 및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회의는 '99년 10월 제1회 회의 개최 이후, 이번에 17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 제17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개요 ▣

일 시	2016년 3월 8일(화) ~ 9일(수)
장 소	호텔오쿠라도쿄(Hotel Okura Tokyo)
주 최	한국측 - (사)한일경제협회, 한국무역협회 일본측 - (일사)일한경제협회
규 모	한일 양국 체어맨, 코디네이터 및 위원 등 50여명
미 셴	1. 한일간의 무역확대 2. 한일간의 투자확대 3. 한일간 공동연구개발 프로젝트 4. 한일산업경쟁력강화 프로젝트

▣ 주요일정(안)

날짜	주요 활동 사항
3/8(화)	18:00~20:00 리셉션(한일 양측 참가 위원 교류 간담회)
3/9(수)	09:30~10:10 개회 10:10~11:30 세션 1 : 아시아 세기에 있어서의 한일 신시대 13:00~14:20 세션 2 : 한일우호·경제협력 원년 ~ 향후 50년을 향한 새로운 한일파트너십 구축 14:40~15:10 토론 15:10~15:30 폐회

※ 문의 : 김정호 부장 TEL : 02-3014-9877 / E-mail : jhkim@kje.or.kr

서광현 대리 TEL : 02-3014-9886 / E-mail : khsuh@kje.or.kr

▷ 2016년도 한일경제협회 주요사업 계획(안) ◁

월	일자	행 사 내 용	지 역	비고
2	17(수)	회장단 회의(이사회)	서울	
		제35회 정기총회	서울	
3	8(화)~9(수)	제17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공동)	동경(Hotel Okura)	
4		주한일본대사 주최 간담회	서울	
5	16(월)~18(수)	제48회 한일경제인회의(공동)	동경(Hotel Okura)	
6		회장단 · 주한일본대사. SJC 친선교류활동		
		제14회 한일경제협회 회원사간담회	서울	
7	29(금)~8/3(수)	한일산업인재육성사업/ 제23회 한일고교생교류캠프(공동)	미야기현	
8		제11회 한일학생미래회의(공동)	일본	
	하순	제17회 한 · 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	도야마	
10	12(수)~13(목)	제23회 한 · 일(큐슈)경제교류회의	후쿠오카	
		주한일본대사 초청 간담회	서울	
11		제15회 환황해 경제 · 기술교류회의	중국	
		제15회 한일경제협회 회원사간담회	서울	
12		한일 · 일한경제협회 정례업무협의(공동)	서울	

글로벌청년인재육성사업 제22회 한일고교생교류캠프 개최결과



우리협회(회장 김 윤)와 일한경제협회(회장 사사키 미키오/佐々木幹夫)가 공동 주최하는 ‘제22회 한일고교생교류캠프’가, 지난 7월 27일(월) ~ 7월 31일(금)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 유스호스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캠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한일 양국 고교생들이 참여하여 비즈니스를 기획하는 체험형 경제교육 방식으로 열렸다.

한일 양국 혼성 8개 팀으로 구성하여 4박 5일간 합숙하면서 실물경제를 직접 경험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의 산업·문화 등의 상품에 대한 비즈니스 기획, 사업투자금 피칭을 위한 사업부스를 구성하여 투자를 받는 경제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한국 학생 32개교 40명, 일본 학생 35개교 40명(*합계 양국 67개교 80명)이 참가한 이번 캠프의 사업 투자금 피칭에서는 ‘People Help Switch’라는 사업 명으로 1인 가정과 독거노인을 위한 비상 안전 시스템에 대해 비즈니스를 기획한 3팀(I'm Lovin it)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그리고,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식사를 보다 빠르고 건강하게 제공하는 도시락(한일양국의 고유 메뉴) 제작을 기획한 1팀이 우수상을, 세계 여러 나라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신개념 패스트푸드 사업을 기획한 5팀은 인기상을, 어플리케이션으로 자신의 옷장에 있는 옷을 추천받거나 패션 정보 공유하는 사업을 기획한 8팀이 팀워크 상을 수상하였다.



한편, 한일고교생교류캠프 출신의 OB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고 있는 제10회 한일학생미래회의가 8월 6일(목)~10일(월), 한국 부산광역시에서 개최되었다. 차세대를 바라보는 신산업이라는 테마로, 한일 협력과 관련한 4개의 소

주제 ‘신소재, 문화, 스포츠, 정보’에 대해 4박 5일간 토론하며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번 회의는 한일학생미래회의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였기에 단체의 모태

라 할 수 있는 한일고교생교류캠프의 경험을 되살려, 한일 미래의 사업아이템을 한 번 더 고민해보고 기획하는 것으로 초심을 되찾고,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다. 

▶ 제10회 한일학생미래회의 주요 발표 내용 ◀

소주제	발표 내용
신소재	○ 주제 : 광촉매를 이용한 수처리 기술 ① 기존의 정수 시스템에서 광촉매에 의한 폐수처리 시설을 추가 ② 광촉매의 장점을 활용 ③ 투자 유치 확보 ④ 일부 성과를 올리고 있는 소규모 수처리 시설의 상업화를 고려
문화	○ 주제 : K&J BEAUTY TOWN ① 한국 혹은 일본만의 헤어, 화장품, 웰빙 음식, 패션이 모여 있음 ② 이벤트장 마련 ③ 앱 이용 ④ 외부 이벤트, SNS 홍보
스포츠	○ 주제 : KJ 리그 ① KJ리그는 1년에 한 번의 이벤트 형식 ② 메인 경기는 K리그와 J리그의 올스타전 ③ 양국 고등학생들의 전초전 ④ 경기장 밖의 이벤트 ⑤ 매너 투표 실시
정보	○ 주제 : KJIH (Korea-Japan Interconnected History lecture) ① 한일 양국의 역사를 서로의 언어로 인터넷 강의 형식을 빌려 알려주는 정보 콘텐츠 ② 한일역사공동위원회를 통해 콘텐츠를 제작 ③ 인터넷 강의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 ④ 초반에는 대학생을 타겟팅으로 하고, 점차 넓혀갈 예정

제16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 개최결과



우리나라 동해안 4개 자치단체(대구·울산·강원·경북)와 일본 호쿠리쿠(北陸3県: 토야마·이시카와·후쿠이)지역과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제16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가 지난 8월 25일(화)~28일(금), 울산광역시 롯데호텔에서 개최되었다.

본회의는 양국 지방간 경제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0년부터 일본 호쿠리쿠지역(이시카와현, 토야마현, 후쿠이현)과 함께 개최하고 있는 회의이다. 2000년 7월 일본 토야마현에서 개최된 제1회 회의를 시작으로 매년 양국에서 교대로 열리고 있으며, 지금까지 양국간 교류는 16년간 2,578명(한국 1,060명, 일본 1,518명)이 참가해 지자체 MOU체결 및 192개의 경제협력 사업에 합의했고, 기업 간 377건 4천390만달러(*2012년 기준)의 비즈니스 상담을 추진하는 등 지역 경제협력의 발판을 마련해왔다.

이번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이상진 통상협력국장 및 경상선 중부경제산업국 타카스기 히로야스 지역경제부장이 정부대표로, 한일경제협회 이종윤 부회장 및 호쿠리쿠경

제연합회 큐와 스스무 회장이 민간대표로 참가하였으며, 양측 6개 지방자치단체(울산, 경북, 대구, 이시카와현, 토야마현, 후쿠이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울산경제진흥원, 울산광역시 관광협회 등 경제단체, 대학, 연구소, 기업 등에서 121명이 참가하였다.

한일 양국의 경제현안을 살펴보고 향후 공동 협력 방안을 찾기 위한 이번 회의는 2개의 업종별 전문분과회(관광, 의료융복합)로 나누어 개최하였으며, 유관기관 및 기업 간 사전 매칭작업을 통해 개별미팅도 진행하였다.



특히 이번 회의의 주요 성과로는 새로운 50년을 향한 한·일(호쿠리쿠) 공동번영의 시대로'를 테마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지방경제 활성화 정책공유, 초국경 관광 및 의료융복합 산업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하였다.

또한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라는 기념비적인 해를 맞이하여, 향후 50년도 지역 간 협력·산업 간 융합으로 한일이 공동번영의 시대로 가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유익한 회의가 되었다.

- ▶ 일본 호쿠리쿠 세어 TOP 100대 기업과의 교류 추진
- ▶ 한국청년인재채용 상담회 개최
- ▶ 관광객 유치 정책 공유(저가 항공편 이용 촉진)
- ▶ 생명과학 클러스터 협력(원주-호쿠리쿠)
- ▶ 탄소섬유 클러스터 협력(전북-이시카와)

호쿠리쿠 지역경제는 일본 경제 전체에서 3% 전후를 차지하며 뉴질랜드, 헝가리, 베트남 지역에 필적하는 경제권으로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어 2015년 3월 호쿠리쿠 신간선 개통에 의해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향상되어 생명과학 산업과 고기능 신소재 산

업의 거점으로서 발전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어 양국 간 경제협력이 더욱 활성화되어 한일 무역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6년 제17회 차기 회의는 일본 도야마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회의 주요성과 ◀

- 새로운 50년을 향한 한·일(호쿠리쿠) 공동번영의 시대로'를 테마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지방경제 활성화 정책공유, 초국경 관광 및 의료융복합 산업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
 - 일본 호쿠리쿠 세어 TOP 100대 기업과의 교류 추진, 한국청년인재채용 상담회 추진, 관광객 유치 정책 공유(저가 항공편 이용촉진), 생명과학 클러스터 협력(원주-호쿠리쿠), 탄소섬유 클러스터 협력(전북-이시카와) 등
- 동해안 4개지역과 호쿠리쿠 3현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서로 Win-Win하는 산업협력 확대 방안 발굴, 한일 하나의 경제권 형성을 촉진
 - 일본 나가노 동계올림픽 의료체제의 평창동계올림픽 벤치마킹 등

- 1) 환동해권 4개지역과 호쿠리쿠 3현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한·일(호쿠리쿠) 관계기관·기업 간 네트워크 확대 및 산업협력 기반 구축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한국미쓰이물산, 중소기업융합울산연합회-호쿠리쿠경제연합회,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이시카와현

- 상공회의소연합회·가나자와상공회의소·일본저항기제작소 등 3건 상담실시, 호쿠리쿠 관계기관·기업과의 협력 방안 모색
- 2) 한일 지방경제 활성화 정책 공유 및 경제협력 방안 모색
 - 환동해권 발전 주요전략(에너지산업벨트, 국제자연·문화관광거점, 항만·물류인프라)

- 라 확충) 및 호쿠리쿠 산업경쟁력 강화전략(생명과학·탄소섬유 등 고기능 신소재 관련산업 육성, 호쿠리쿠·중부 지역연계 승용도 인바운드관광 육성)의 정책 공유
- 한일 기업간 교류 촉진을 위해 차기 회의에서 일본 호쿠리쿠 세어 TOP 100대 기업과의 교류 추진
 - 한국의 청년실업 해소 및 일본기업의 우수인재 채용 등 상호 Win-Win협력을 통한 양국 간 인적 네트워크 및 동반자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일본기업 취업상담회 수요조사 및 채용상담회 개최를 추진
- 3) 실질적인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제언
-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여
- 한·일 경제관계를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새로운 50년을 향한 한일(호쿠리쿠) 공동번영의 시대로’를 테마로 하여 세미나 형식의 전체회의, 관광산업 전문분과회·의료융복합 전문분과회로 나누어 회의를 개최
- 4) 종합평가 및 향후 후속조치 사항
-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라는 기념비적인 해를 맞이하여, 향후 50년도 지역 간 협력·산업 간 융합으로 한일이 공동번영의 시대로 가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유익한 회의가 되었음
 - 초국경 관광 및 의료융복합 산업 네트워크 구축

기관·기업명	제언 내용
(전체회의)	
울산발전연구원	환동해권 경제협력방안 - 에너지산업벨트, 국제자연·문화관광거점, 항만·물류인프라 확충
(주)효성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탄소섬유분야의 한일협력 -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소개 및 호쿠리쿠 탄소섬유산업 연계제언
(재)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	한일 생명과학 클러스터 구축 및 협력제언 - 기업연계 DB구축, 연구회 운영, 전시상담회, 융합R&D, 제3국협력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1세기 신소재분야 한일협력방안 - 에어로겔 신소재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한일협력 제언
중부경제산업국	호쿠리쿠 지역 경제현황과 산업경쟁력 강화전략 - 생명과학·고기능 신소재산업 육성, 지역연계 인바운드 관광 육성
호쿠리쿠산업활성화센터	끝없는 가능성을 추구하는 호쿠리쿠산업활성화센터 소개 - 저출산·고령화 대처, 호쿠리쿠라이프사이언스 클러스터 형성 지원

기관 · 기업명	제언 내용
호쿠리쿠경제연구소	한국과 호쿠리쿠의 미래창조를 위한 제언 - 청소년스포츠교류, 산악연계교류, 고령화대처, 농업, 공통물류항로
(관광산업 분과)	
울산광역시	한일 관광분야 협력방안 - 공동홍보(관광홈페이지 연계, 홍보관), 공동상품개발, 관광국제회의
강원무역창업연구원	한일교류협력을 통한 강원도 관광활성화 방안 - 공동마케팅 프로그램 개발(사사체험, 축제), 양양국제공항 노선확대
경상북도	한국형 문화체험 숙박브랜드 ‘한스테이’ - 지트 프랑스 사례, 한국의 문화체험 숙박 브랜드 한스테이 소개
대구광역시관광협회	대구의 관광자원 - 도시안전체험, 대구과학관, 물문화전시관, 섬유박물관 등
호쿠리쿠3현 (도야마, 이시카와, 후쿠이)	호쿠리쿠 3현의 관광자원 - 다테야마 알펜루트(富山), 크루즈 유치(石川), 공룡박물관(福井)
도야마상공회의소 연합회	도야마 산업관광도감 발간 - 역사적 · 문화적 가치가 있는 산업유산과 생산현장 등의 관광자원화
일본유니시스(주)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 ICT(스마트폰 앱 등)를 활용한 유니시스의 관광객 유치 활동
후쿠이현	후쿠이현 공룡박물관과 공룡 비즈니스의 전개 - 공룡을 활용한 마을조성 · 유치객 확대, 기업협력 비즈니스 추진
(의료융복합 분과)	
(재)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	한일 의료기기 산업의 현황 및 한일협력방안 - 한국(ICT) · 독일(원천기술) · 일본(생명과학)글로벌 메가클러스터 제언
영남대학교	스마트에이징 융복합연구센터 - 노화제어를 응용한 노화질환의 진단 및 치료법 개발
대구광역시	대구메디컬클러스터 -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대구연구개발특구 의료R&D지구 소개

기관·기업명	제언 내용
대구대학교	한국 의료관광과 메디텔의 활성화 방안 - 의료관광의 중요성(환자의 국제이동증가), 메디컬호텔 활성화 방안
도야마대학	ICT를 활용한 의료현장 환자분류 지원시스템의 개발 - 응급 의료현장에서의 환자분류·응급정보시스템 가이드라인
(유)바이오디바이스 테크놀로지	포터블 바이오센서의 개발과 상용화 - 현장에서의 신속한 계측에 의한 헬스케어·임상진단·식품안전 모니터링
호쿠리쿠산업활성화 센터	대추의 수요확대와 부가가치 향상을 지향하는 기능성 연구 - 대추의 6차 산업화, 대추의 기능성 연구(항암, 혈당조절작용) 소개

- 호쿠리쿠 지역은 자연재해가 적고 2015년 3월 호쿠리쿠 신간선 개통에 의해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향상되어 생명과학 산업과 고기능 신소재 산업의 거점으로서 발전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어 양국 간 경제협력이 더욱 활성화되어 한일 무역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호쿠리쿠 3현과의 교역액은 첫 회의가 개최된 2000년(54,324백만엔)에 비해 2014년에는 2.4배 증가한 132,536백만엔을 기록
- 2017년 제17회 차기 회의(도야마)는 새로운 50년의 출발점에서 동반성장·공동번영의 시대로 함께 나아가기 위한 한·일(호쿠리쿠)기업 간 협력에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 개편을 추진
 - 한일기업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세미나+상담회 프로그램으로의 개편을 추진
 - 상담회·전시회 기간 개최, 공장견학, 기업 PR 세미나(상품·신기술)
 - 호쿠리쿠 세어톱 100대 기업과의 매칭, 교류 추진
 - 기계금속, 전기·전자, 섬유, 화학, 요업·유리, 플라스틱, 기타
 - 일본기업의 교류희망 수요조사, 니즈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운영
 - 상품교역, 투자, 기술협력, 제3국 협력, 연수, 인재교류 등
 - 전체회의(세미나) → 지자체 or 지역상공회의소·단체간 논의 세션
 - 경제정책 공유 →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지역이 주체)
 - 일본기업 취업상담회 수요조사 및 채용상담회 개최 추진
 - 호쿠리쿠 지역 인재매칭 상담회

제14회 환황해 · 경제기술교류회의 개최결과

- ▶ 환황해 · 경제기술교류회의 '01년 제1회 회의 이후 매년 한 · 중 · 일 3국이 번갈아 개최하면서, 환황해권 경제 · 기술협력 강화의 발판을 마련
 - 14년간 한국 1,471명, 일본 1,996명, 중국 1,697 합계 5,164명이 참가



제14회 환황해 · 경제기술교류회의는 지난 11월 3일(화)부터 11월 5일(목) 3일동안 부산광역시 롯데호텔부산에서 개최되었다. 환황해 · 경제기술교류회의는 한국측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이상진(李相珍) 통상협력국장 등 169명, 일본측에서는 경제산업성 큐슈경제산업국 기시모토 요시오(岸本 吉生) 국장 등 115명, 그리고 중국측에서는 상무부 아주사 평강(彭 剛) 부사장 등 96명이 참가하였다(전체計 380명, 본회의 267명).

한중일 3개국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 및 대학 · 기업 등이 참가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한중일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방안' ~의료 ·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 인재육성을 키워드로~ 라는 주제 하에 진행되었으며, 구체화를 위한 방책 등을 논의 하였다.



전체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이상진(李相珍) 통상협력국장, 큐슈경제산업국 기시모토 요시오(岸本 吉生) 국장, 중국 상무부 아주사 평강(彭 剛) 부사장의 각국 대표 인사가 있었다. 또, 3국 협력제안 발표를 한국측은 김광선 한국공학교육학회 회장, 김상용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일본측은 히라이 아키라 큐슈경제연합회 상무이사, 이와타 카즈아키 (공재)서일본산업무역컨벤션협회 사무국장, 중국측 제안으로는 왕징밍 랴오닝성 대외무역경제합작청 부청장과 쑹의권 장쑤성 APEC 무역대표처 수석대표가 발표하였다.





이종윤 한일경제협회 상근부회장은 회의 전체 총괄 및 폐회 선언에서 한중일 3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산업내 분업을 어떻게 확대, 강화 해 나갈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회의에 임해 왔으며, 한중일 3국간에는 굉장히 많은 협력의 여지가 있고 비즈니스포럼에서 언급된 많은 제안에서 볼 수 있듯이 구체적으로 논의, 협력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총장포럼을 통해서 한중일 속에서 청년들을 어떻게 육성시키고 있고, 어떻게 한중일 발전을 위한 인재로 육성시키려고 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논의해 가는 과정에서 협력의 가능성이 훨씬 더 큰데, 유감스럽게도 유럽의 EU, 미국의 NAFTA에 비해서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

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같은 수준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이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계 행사로 개최된 「환황해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동아시아경제공동체 형성과 한중일 산업내 분업을 테마로 한중일 3국에서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있는 주력 분야에 대해 기초강연 및 협력사례 발표가 있었으며 3국간 협력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환황해 지역에서의 비즈니스 교류를 촉진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환황해 산학관 총장포럼에서는 산학연계를 기반으로 하는 한중일 인재교류를 테마로 환황해지역에서의 인적 자원 개발 및 3국 대학간 상호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14회째를 맞이하는 금번 회의를 통해 한중일 삼국의 각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자본·기술·인재 등의 지역 자원을 상호 보완하여 무역·투자·산업기술교류확대와 지역 간 교류를 촉진하는데 기여하였으며 한중일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의료·바이오,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 인재육성분야의 윈윈방안 제시 및 상호공동번영을 통한 환황해지역 경제활성화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였다. 2016년 회의는 중국 옌청시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 회의 주요성과 ◀

- 한중일 삼국의 각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자본·기술·인재 등의 지역 자원을 상호 보완하여 무역·투자·산업기술교류확대와 지역 간 교류를 촉진하는데 기여
- 한중일 환황해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 표창을 통해 환황해 지역의 발전과 경제교류 확산의 분위기 조성에 기여함으로써, 3국간 무역·투자·기술·인재 교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 제1회 회의 개최당시인 2001년 대비 3국 무역규모는 약 4배가 성장 '01년 약1,600억 달러 → '13년 약 6,400억 달러(한중일 3국의 전 세계 교역비중은 12%에서 18%로 증가)

▶ 회의 주요성과(계속) ◀

- 한중일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의료 ·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 인재육성분야의 원원방안 제시 및 상호공동번영을 통한 환황해지역 경제활성화에 대한 인식을 공유
 - 공학인력 양성, 바이오매스경제 R&BD 협력, 산업단지 구축 협력, MICE 협력, 의료 · 바이오분야의 친고령화 산업협력, 한중일 산업내 분업, 해상풍력 · 전력분야의 신재생 에너지 협력, 산업계와 연계한 한중일 인재교류 확대 등 제언
 - 차기회의(제15회 환황해 회의)는 중국 장쑤성 옌청시에서 개최
 - 3국 국장회의에서 제안된 한중일 3국 공동연구, 공로자 표창제도의 실현 및 한중일 지역협력촉진의 동기부여 · 확산
 - 3국 공동연구 : (한) 가공식품 · 코스메틱 · 헬스케어 분야, (중) 산업단지 · 전자상거래 · 무역투자 분야, (일) 환경 · 리사이클 · 에너지절약 · 재생에너지 분야
 - 3국 공로자 표창 : 기업 등 법인 · 개인부문, 지방공공단체 · 경제단체부문 각 1명씩 총 6명에 대해 대상을 수여, 한중일 지역협력촉진의 동기부여 · 확산
 - 정부간 고위급 회의에서 환황해 회의가 성공리에 운영되고 있음을 평가
 - 제10회 한일중 통상장관회의('15. 10. 30 서울), 제5차 한일중비즈니스 서밋 공동선언('15. 11. 1 서울)에서 3국 정상간 공동의 인식 표명
 - 한중일 3국 협력의 완전한 복원을 뒷받침하는 3국 지역간 협력으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축을 진전시키는 역할
-
- 한중일 삼국의 각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자본 · 기술 · 인재 등의 지역 자원을 상호 보완하여 무역 · 투자 · 산업기술교류확대와 지역 간 교류를 촉진하는데 기여
 - 실제로 한중일 3국간 역내교역량은 첫 회의가 개최된 2001년 1,638억불 규모에서 2014년 6,305억불 규모로 4배 가까이 성장해 왔음
 - 한중일 세 나라는 2014년 기준으로, 전세계 GDP의 22%(16.8조 달러)와 교역량의 19%(6.9조 달러), 세계인구의 20%(15억 명)를 차지하고 있어 세계경제에서의 비중과 역할이 매우 큰 편임
 - 금번 회의시 「한중일 공학교육 협력」, 「환황해 지역에서의 목재산업 연계」, 「국제산업 협력단지 협력」, 「바이오매스경제 R&BD 협력」, 「MICE산업 협력」 등 한중일 지역교류 확대를 위한 3국 상호협력 · 제안사항으로서 총 6개의 협력사항을 제안
 - 2005년에 새롭게 신설한 한중일 환황해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 표창을 통해 환황해 지역의 발전과 경제교류 확산의 분위기 조성에 기여
 - 다른 지방 공공단체 및 경제단체, 기업의 활동 의욕을 고취시켜 환황해 지역의 발전과 경제교류의 확대를 도모
 - 표창 부문 : 한중일 각국은 아래의 2개 부문에서 매년 각 1개사(1명)를 본 회의에서 표창

<2015년 환황해경제기술교류대상 수상자>

○ 기업 등 법인·개인부문 : (한)배재대학교 임대영 교수, (중)대련중일한 리사이클경제 시범기지, (일)다이이치시설공업(주) 시노하라 오사무 대표

○ 지방공공단체·경제단체부문 : (한)(재)부산 경제진흥원, (중)산동성 상무청, (일)큐슈지역환경·리사이클산업교류플라자(K-RIP)

- 환황해 회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3국 정부대표자 회의에서는, (韓)환황해지역 경제발전방안 공동연구, 투자유치, 고용촉진, (中)지방간 경제파트너십 관계 구축과 중점프로젝트 추진, (日)환황 해회의 공헌 표창, 글로벌 인재교류 등에 대해 논의하고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
- 연계 행사로 개최된 「환황해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의료·바이오분야, 산업단지·물류분야, 신재생 에너지분야의 비즈니스 교류 촉진·강화를 위한 상호간 정보를 공유하고 3국간 협력 방안을 제시
- 「환황해 총장 포럼」에서는, 환황해 연안 지역에서의 산학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인재 교류(환황해 인턴십 캠퍼스 창설) 등에 대해 논의하고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

- 「한중일 3국 공동연구 워크숍」에서는, 한중일 3국 공동연구 관계기관이 모여, 각국이 제안하는 액션플랜 등 보고서 취합에 대해 논의

3. 평가

- 이번 회의는 2012년 5월 이후 3년 만에 재개된 ‘한중일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리고 나서 바로 직후에 개최되는 첫 번째 3국간 경제교류회의로서, 21세기를 진정한 아시아의 세기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한중일 경제공동체 형성’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였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매우 컸음
 - 환황해 공로자 표창의 정례화, 산업내 분업을 통한 환황해 역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액션 플랜 수립·로드맵 작성·정책 제언, 지역 산업 육성 정책 공유, 글로벌 인재교류 활성화 등에 합의
 - 한중일 3국 간 무역구조는 일본은 한국에, 한국은 중국에, 중국은 일본에 각각 흑자를 보이고 있으며, 단순히 지리적 인접성을 넘어 경제적으로도 떼려야 뗄 수 없는 공동운명체가 되고 있음

<전체회의 제안사항>

구분	제 안 내 용
한국	① 창조경제와 한중일 공학교육 협력 ② 환황해권 바이오매스경제 R&BD 협력
중국	① 환황해 지역경제무역 협력 ② 수준높은 국제협력단지 조성 ③ 제15회 환황해 회의 유치(장쑤성 엔청시)
일본	① 환황해지역의 목재산업 연계 협력 ② 부산 벡스코와 서일본산업무역컨벤션협회와의 MICE 협력

<포럼 주요논의 내용>

구분	제 안 내 용
환황해 비즈니스 포럼 「동아시아경제 공동체 형성과 한중일 산업내 분업」	□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 촉진을 위한 한중일 산업내 분업 방안을 제시 ○ 의료·바이오분야 - 글로벌 보건의료시장 공동진출, 바이오 메디컬 사업 협력, 무역박람회 협력 등 ○ 산업단지·물류분야 - 한중일 산업내 분업, 산업단지 건설 및 3국협력, 물류개선(3국 더블넘버제) 등 ○ 신재생에너지분야 - 전력분야의 협력, ‘22년 동계올림픽 신재생에너지 협력(허베이성), 해상풍력 협력 등
환황해 총장 포럼 「산학협력 인재 교류 촉진」	□ 산학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인재교류 협력 방안제시 ○ 환황해 인턴십 캠퍼스 추진 ○ 한중일 창업연계 프로그램, 크루즈 한중일교류원정 프로그램, 3국 공동 해외 봉사단 프로그램 추진 등
3국 공동연구 워크숍 「환황해지역의 경제협력증진 방안」	□ 환황해 지역의 교류활성화, 나아가서는 한중일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3국의 비교 우위산업을 어떻게 잘 융합하여 활발히 교류해 나갈 것인지 협력방안을 제시 ○ (한국) 가공식품·코스메틱·헬스케어 분야 - 환황해 지역 공동의 기업 D/B 구축 등 ○ (중국) 산업단지·전자상거래·무역투자 분야 - 산업단기간 협력, 전자상거래 표준화, 신속통관 - 한일FTA, 한중일FTA, 일대일로(一帶一路) 협력 등 ○ (일본) 환경·리사이클·에너지절약·재생에너지 분야의 협력모델 - 에너지 포럼, 해상 풍력발전 실증사업 등 민간 비즈니스 전개 등

<3국 정부대표자회의 제안사항>

구분	제 안 내 용
한국	① 환황해 지역 경제발전 방안 공동연구에 대한 실행방안 - 3국 투자펀드 조성, 산업단지 포럼 개최 등 ② 고용촉진 : 한중일 인재채용
중국	① 지역간 경제파트너십 구축 : 지자체 수요조사, 협력 ② 지역내 중점프로젝트의 추진 : 베이징·톈진·허베이성 등의 징진지 공동발전, 장강경제벨트, 동북진흥 프로젝트 협력
일본	① 환황해경제기술교류대상(大賞)의 정례화 ② 글로벌 인재육성 : 큐슈지역 유학생 채용 촉진

제22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 개최결과

- ▶ 한·일(큐슈) 경제교류회의는 '93년 11월 제1회 회의 이후 매년 양국이 번갈아 개최하면서, 양국 지역간 산업협력 발판을 마련
- 22년간 한국 1,099명, 일본 1,430명 합계 2,529명이 참가



제22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가 지난 11월 3일(화) ~ 11월 5일(목) 3일동안 부산광역시에서 개최되었다.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는 한국측에서는 이상진(李相珍)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장, 이종윤(李鐘允)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등 69명, 일본측에서는 키시모토 요시오(岸本 吉生) 큐슈경제산업국장, 아소 유타카(麻生 泰) 큐슈경제연합회 회장 등 62명이 참가하였다(전체計 131명).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경제단체, 대학, 연구소, 기업 등의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한·일(큐슈)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각각이 보유하는 자본·기술·인재 등의 지역 자원을 상호 보완함으로써, 무역·투

자·산업기술의 교류 확대와 지역간 교류 촉진에 대해 논의하였다.

기조강연에서 한국측은 동서대학교 신은규 교수가 '한·일 의료관광 육성방안'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였으며, 큐슈헬스케어산업추진협의회 아리에 소리 회장은 '큐슈헬스케어추진협의회 활동에 대해'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양국 비즈니스 모델 제안·사례발표에서는 한국측 유한대학교 양재영 교수, 박동오(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팀장, 일본측은 파나소닉(주) 사이토 히로유키와 메디폴리스 국제양자방사선치료센터 히시카와 요시오 센터장이 발표하였다.

금번 회의에서 기업과의 비즈니스 매칭 및 큐슈지역 기업 17사의 인사담당자를 초청하여 인재채용 상담회 개최하여 일본시장 개척 및 해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다.(한국 34개사, 일본 18개사 총 52사 87건의 상담을 실시, 상담금액 5.4억원)



뿐만 아니라 이번 회의에서는 한일경제협회와 큐슈경제연합회 공동으로 큐슈일한경제교류

회 등의 협력을 얻어 민간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하여 자동차부품·기계·신재생에너지분야 등 수산업분야의 한·일(큐슈)간 비즈니스 교류를 촉진하였다.



큐슈의 지역 총생산액(GDP)은 세계 22위의 스웨덴 경제와 비슷한 규모로, 하나의 국가에 필적하는 경제규모를 지닌 큐슈지역은 한국과

가장 가까운 지역으로서 일본시장 진출을 위한 관문(Gateway) 및 테스트시장으로서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

금번 회의는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행사’의 하나로 개최가 되었으며, 향후 50년을 향해 한일이 동반성장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는 회의가 되었으며, 한일 지역간 경제교류회의의 플랫폼으로서 지역발전에 기여하였다. 본회의에서 제안된 내용의 충실한 이행과 상담성과 제고를 위해 일본측 파트너 기관인 큐슈경제산업국(회의)과 큐슈경제연합회(상담회)와의 지속적인 팔로우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2016년 제23회 회의는 후쿠오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회의 주요성과 ◀

- (상담회)큐슈지역 기업과의 비즈니스 매칭 및 인재채용 상담회 개최로 일본시장 개척 및 해외 일자리 창출에 기여
 - 한국 34개사, 일본 18개사 총 52사 87건 상담실시(상담금액 5.4억원)
 - * 제1회 회의 개최당시인 1993년 대비 양국 무역규모는 약 2.7배가 성장
'93년 6,259억엔 → '14년 1조6,947억엔(후쿠오카 등 큐슈7현)
 - 큐슈지역 기업 17사의 인사담당자 초청, 한국청년 취업상담회 개최
- (회의)의료관광산업 전략적 제휴 등 인구 피라미드를 고려한 신성장분야인 헬스케어 산업의 윈윈방안 제시 및 상호 공동 번영을 통해 한일 하나의 경제권형성 촉진 및 상호 발전을 견인해 나가는 관계를 구축
 - 리조트연계형 메디컬센터 조성, IT기반 의료체계구축, 아시아 바이오 클러스터 연합, 의료분야 협력(환자소개, 진단, 치료, 인재교류) 등 발전방안 제언
 - 부산신항의 화물처리실적, 시설현황, 미래비전 등을 큐슈지역 핵심인사들에게 PR함으로써, 큐슈기업의 국경을 초월한 환적항 이용촉진·인식전환에 기여
 - 차기 제23회 회의는 일본 후쿠오카에서 개최

	한국측	일본측	상담건수	상담금액	성약가능 추정금액
전업종	34개사	18개사	87건	5억 3,400만원	3억 8,900만원

- 1) 한·일(큐슈) 기업 간 비즈니스 확대
(한·일(큐슈) 비즈니스상담회 & 선진의료기기상담회)
- 한일경제협회와 큐슈경제연합회 공동으로 큐슈일한경제교류회 등의 협력을 얻어 민간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하여 자동차부품·기계·신재생에너지분야 등 산업분야의 한·일(큐슈)간 비즈니스 교류 촉진
 - 상담회 주요 상담실적
 - 일본측 스테어(주)에서 한국측 용두공업이 생산하고 있는 풍력발전기용 PCB (1200*1600) 1,000매 샘플 발주.

- 일본측 SCG홀딩스에서 후쿠오카시에 운영하고 있는 슈퍼목욕탕에 한국측 MC Tech에서 생산하고 있는 탄산천 제조장치에 큰 관심을 보임. 우선 샘플 1대를 일본 복귀 후 구매·사용(300만엔)하고, 향후 일본내 판매 확대를 검토

2) 일본(큐슈) 기업 취업 상담회 개최

- 일본기업 17사 참가, 서류심사에 합격한 국내 74명의 청년인재와 취업상담 실시

3) 실질적인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제안

발표자·제언기관	주요 발표내용·제언(요약)
1. 기초강연 ○ 동서대학교	‘한일 의료관광 육성방안’
- 고령화 사회의 한일 의료관광 4대 핵심사업군 제시 및 미국·유럽 중심의 의학기술 발전 시대를 동아시아 시대로 이전시키기 위한 UNOMDP(UN메디컬 개발사무소)와 한일 연계·융합전략, 의료관광·건강서비스 산업의 공생적 4대 발전 전략을 제언 * (4대 사업군) 의료 서비스 특화 및 국내외 유명 병원과의 전략적 제휴, 리조트 연계형 메디컬 센터 조성, 건강 자원 연계를 통한 테마단지 조성, 건강제품의 해외유통 및 판매사업 집중육성 * (4대 공생발전전략) 연구개발 지원전략, 정책 규제 개선, 세계화, 지식서비스 산업화	
○ 큐슈헬스케어산업 추진협의회(HAMIQ)	‘큐슈헬스케어산업추진협의회의 사업활동에 대해’
- 큐슈의 인구 추이와 고령화율(‘40년 36.4%)·전국 상위의 의료비 지출 현황 소개 및 일본의 의료기기·헬스케어 서비스 분야의 방향성, 큐슈헬스케어산업추진 협의회의 사업활동에 대해 발표 * (방향성) 의료기기관련 분야 : 네트워크화 활동강화, 의료의 국제전개(병원수출·판로개척) 헬스케어서비스 분야 : 예방·건강서비스의 산업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커뮤니티의 활성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사회경제시스템의 재구축	

발표자 · 제언기관	주요 발표내용 · 제언(요약)
* (사업활동) ‘건강수명이 늘어나는 사회의 구축’을 위한 의료관련기기부회 · 헬스케어 서비스 부회의 활동(기업매칭 · 세미나), 해외시장조사, 계몽 보급, 공헌 대상 표창, 인재육성 * (향후계획) 의료 · 복지산업의 고도화와 타 산업의 참여 촉진, 지역자원 활용과 지자체 연계 헬스케어 서비스 창출, 의료기기와 헬스케어서비스를 패키지로 한 해외진출 촉진	
2. 영국 비즈니스모델 제안 · 사례발표 ○ 유한대학교	‘글로벌 헬스케어산업의 활성화 방안’
- 3.5차 산업으로서의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개념 및 한일 양국의 협력방안에 대해 발표 * (개념) 의료소비자나 가족이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것을 의미 * (3.5차 산업) 3차 서비스산업+0.5차 산업(의료 관광, 웰빙 관광, 음식 관광) * (활성화 방안) 의료관광 협력 네트워크 구축, IT기반 의료 체계 구축(서비스 · 미디어 · 통신 결합 융복합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한국 바이오 의약산업 현황 및 글로벌 협력사업 추진사례’
- 한국 바이오 의약산업의 현황 및 육성 전략,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사례 소개 및 아시아 바이오 클러스터연합 강화를 위한 2단계 ABP(아시아 바이오 비즈니스 파트너링) 프로그램 제언 * (클러스터현황) 15개 광역 및 지자체에 25개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소재, 의약, 의료기기등) * (연합 필요성) 48개 북미 대형 클러스터 · 246개 유럽 전문 클러스터에 대응하는 아시아 지역 소형 바이오 클러스터간 연계 · 협력의 필요성 증대 * (2단계 ABP) 1단계(정보공유 ·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을 토대로 2단계(기업지원 · 네트워크 강화) ABP 프로그램 구성 제안 : 일본 큐슈 지역의 구루메리서치 파크와의 협력 강화	
○ 파나소닉(주)	‘파나소닉의 요양보호(개호)사업’
- 파나소닉(주) 에코솔루션즈사의 17년간의 요양보호 사업(요양보호 서비스 · 솜 · 용품개발) 소개, 행정기관에 의한 로봇 요양보호기기의 개발 · 도입, 초고령 선진국으로서의 전세계에 대한 메시지를 발표 * (개발분야) 경산성 · 후생성의 중점 개발지원분야 : 이승 보조, 이동 지원, 배설 지원, 인지증(치매) 케어 등의 요양보호대상의 자립지원 촉진과 종사자의 부담경감에 이바지 * (메시지) 초고령 선진국으로서, 기존의 공업 · 경제선진국(‘강한 국가’)에서 고령 · 복지선진국(‘온화한 국가’)을 지향	

발표자 · 제언기관	주요 발표내용 · 제언(요약)
○ 메디폴리스국제 양자선치료센터	‘메디폴리스의 국제교류’
- 일본국내의 입자선(방사선)시설의 현황 소개 및 한국 · 중국과의 교류사례 소개 * (협력사례) 한국 대전 소재 선메디컬센터와의 업무제휴를 통한 의료분야에 있어서의 상호발전 도모(인재교류, 치료원조 및 환자소개, 병원관리, 의료기술에 대한 상호원조 협력, 각종 세미나 · 포럼 개최 및 지원) * (협력계획) 최고의 진단기술을 가진 한국의 병원에서 진단 받은 중국인들을 고도의 양자선(방사선)치료로 치료함으로써 3국의 의료를 통한 양호한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공헌	

4) 종합평가 및 향후 후속조치 사항

은 대일수입(5조4,586억엔)의 21.5%를 차지

- 본회의와 더불어 일본 큐슈지역 업체와의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일본 큐슈지역 시장개척에 기여
- 한 · 일(큐슈)비즈니스 상담회와 선진기 기 상담회, 청년인재채용 상담회를 병행 개최하여 한일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상호보완함으로써 하나의 경제권 형성 촉진 및 지역에 도움이 되는 회의로 발전
- 하나의 국가에 버금가는 경제규모를 지닌 큐슈지역(GDP : 5,230억달러, 세계 22위의 스웨덴 경제와 비슷한 규모)은 한국과 가장 가까운 지역으로서 일본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 및 한일 무역확대에 기여
- 2014년 한 · 큐슈 무역은 1조6,947억엔으로 한 · 일 무역액(9조엔)의 18.8%를 차지
- * 한국의 對큐슈 수출(5,217억엔)은 대일수출(3조5,297억엔)의 14.8%를 차지하며, 對큐슈 수입(1조1,730억엔)

- 금번회의는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행사’의 하나로 등록이 되어 개최가 되었으며, 향후 50년을 향해 한일이 동반성장의 시대로 나아가야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는 회의가 되었으며, 한일 지역간 경제교류회의의 플랫폼으로서 지역발전에 기여
- 한국의 성장발전이 일본의 성장발전을, 일본의 발전이 한국의 발전을 이끄는 상호 발전을 견인해 나가는 관계를 구축
- 인구 피라미드를 반영한 파나소닉 등 전자업체의 헬스케어 산업으로의 선제적 사업 대응 사례 벤치마킹 및 미래 건강 서비스산업에 대한 공동협력의 인식을 공유
- 본회의에서 제안된 내용의 충실한 이행과 상담성과 제고를 위해 일본측 파트너 기관인 큐슈경제산업국(회의)과 큐슈경제연합회(상담회)와의 지속적인 플로업 실시

제13회 회원사간담회 ~ 저성장 시대,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 (일본경제 전문가 초청 세미나)



지난 9월 18일(금),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중회의실에서 제13회 회원사 간담회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주최 하에 개최되었다. 본 간담회는 한일 간 이슈 등에 대한 전문가 초청 강연을 통해 對 일본 관심도 제고 및 정보 제공, 협회 회원사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금번 간담회에서는 ‘저성장 시대,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김현철 서울대학교 교수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김현철교수는 이번 세미나에서 한국경제는 저성장시대 초입의 일본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고 장기 저성장시대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다가올 저성장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저성장시대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은 저성장시대를 어떻게 극복해 나아갈 것인지 그 방안을 제시하였다. 저성장시대의 기

업들의 9가지 생존전략 방법은 한국탈피(국가 의존의 탈피), 국내시장의 사수, 새로운 시장의 개척, 원가혁명, 가치혁신, 영업력의 강화, 기동력의 강화, 강력한 리더십 발상의 전환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종운 (사)한일경제협회 상근 부회장은 개회인사를 통해서 지금 한국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공급과잉·수요부족 상황과 함께 아베노믹스의 등장과 더불어 엔저의 압박을 받는 등 이중의 압박을 받는 상태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인들은 어떻게 하면 회사를 잘 경영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 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오늘의 강연을 통해 기업은 저성장시대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가를 아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발표를 중심으로 많은 토론을 통해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리 협회는 회원서비스의 일환인 ‘회원사 간담회’를 통해 한일관계에 저명한 국내외 인사의 강연 및 정보 제공, 협회 사업 안내, 회원사의 요망사항 모니터링 등을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회원사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반영하여 보다 유익하고 발전성있는 회원사 간담회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주한일본대사 초청 협회 회장단 만찬 간담회 개최결과



우리협회 회장단과 주한일본대사관과의 정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주한일본대사 초청 간담회가 지난 11월 25일(수) 롯데호텔에서 개최 되었다.

우리 협회 회장단에서는 김윤 (사)한일경제협회 회장((주)삼양홀딩스)을 비롯하여 박삼구 부회장(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김희용 부회장(동양물산기업 회장), 박인구 부회장(동원그룹 부회장), 서민석 부회장(동일방직(주) 회장), 신동빈 부회장(롯데그룹 회장), 박상진 부회장(삼성전자 (주) 사장), 한동우 부회장((주)신한금융지주 회장), 윤종규 부회장(KB금융그룹 회장), 이종윤(사)한일경제협회 상근 부회장 등 20명이 참석하였고, 주한일본대사관측에서는 벳쇼 고로(別所 浩郎) 대사를 비롯한 스즈키 히데오(鈴木 秀生) 차석공사, 코바야시 켄이치(小林 賢一)정치공사, 사사야마 타쿠야(佐々山 拓也) 총무공사, 하토리 타카시(羽鳥 隆) 경제공사, 사토 마사루(佐藤 勝)공보문화원장 등 7명이 참석하여 한일 양국 간의 협력 분위기 조성 과 경제교류 활성화 등에 대한 의견교환의 자

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은 올해는 한일이 국교를 수립한지 50주년이 되는 기념비적인 해인 동시에 새로운 50년을 향한 전환점이 되는 해이기도 해서, 2015년이 갖는 의미는 그 어느 해보다도 각별하였으며, 우리 협회는 2016을 신(新)한일 경제협력의 원년으로 삼아 새로운 50년을 동반성장 · 공동번영의 시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건배인사를 통해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와 한일정상회의가 개최되어 의미가 컸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리고 2015년에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390만명에 이르며 역사적으로 큰 기록을 세웠으나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은 180만명에 그쳐 아쉬웠다고 말했다. 한일양국의 인구비례를 감안할 때 일본에서 500만명, 한국에서 400만명 합계900만명의 왕래를 기대하며, 언젠가는 총 1,000만명이 상호 방문하는 시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15년도 한일 · 일한경제협회 정례업무협의 개최결과

우리 협회는 일본측 카운터 파트너인 일한 경제협회와의 2015년도 정례업무협의를 지난 12월 9일(수) ~ 10일(목) 일본 동경에서 개최하였다.

한국측은 이종윤 상근부회장, 조덕묘 사무국장 등 6명이, 일본측은 고레나가 가즈오(是永 和夫) 전무이사, 기무라 신이치로(木村 慎一郎) 이사 등 7명이 참석하였다.

금년은 양국 협회가 하나가 되어 열심히 달려온 한해였다고 자평하고, 내년에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양 협회는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지난 50년은 상호 win-win의 관계로 발전해 왔으며, 양 협회가 그 중심에 서서 우호증진 및

경제협력 발전에 크게 공헌해 왔다는데 인식을 공유하였다. 향후에도 양국 경제 협력의 중심적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가는 것은 물론 미래지향적인 향후 50년을 위해 양국의 우호적인 협력관계 증진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 협회는 내년도 사업인 제48회 한일 경제인회의를 비롯하여 제17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글로벌청년인재육성사업(제23회 한일 고교생교류캠프) 등 양협회 주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협의를 마쳤으며, 2016년 일본 동경에서 개최되는 제48회 한일경제인회의(2016.5.16. ~18/동경 오키다호텔)에 대한 현장 답사도 실시하였다. 



자동차부품 시장

〈포인트〉

-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자동차부품시장에 전기전자업체들의 신규 진입이 이어지고 있음
- 2014년은 한국의 대일 자동차부품 무역수지가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하는 등 한국 자동차부품 업체의 일본시장 진출이 확대되고 있으며, 대일 수입량도 크게 줄고 있음
- 앞으로 한일 양국의 자동차부품업체는 세계 표준 확립 등 공통의 과제에 대해 협력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음

1. 최근 업계 동향

1) 전자부품업체의 자동차부품시장 진출 동향

- 일본에서 전자부품업체는 산업의 희망성쇠를 가늠하는 거울 같은 존재로 인식되고 있음
 - TV와 반도체로 한 때 전성기를 구가했던 일본 전기전자업체의 쇠락과 함께 전자부품의 주요 공급처는 스마트폰으로 급성장한 애플과 삼성전자로 교체되었음
 - 그리고 최근 스마트폰 시장도 성장의 한계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일본 전자부품업체들은 자동차부품 분야에서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음
 - 자동차의 환경 대책과 안전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일렉트로닉스에 의존해야 하는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용 콘덴서와 모터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음
- 전압을 안정시키는 전자부품과 적층세라믹 콘덴서 분야에서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무라타(村田)제작소는 스마트폰 시장의 급성장과 더불어 발전해 왔음
 - 애플은 무라타제작소가 만드는 깨알보다 작은 콘덴서를 2010년에 발표한 아이폰4에 탑재했고, 그 이후 무라타제작소를 찾는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늘어났음
- 2012년에서 2013년에 걸쳐 무라타제작소는 적극적으로 인수합병에 나서기 시작했음
 - 2012년에 미세전자기계시스템(MEMS, Microelectromechanical systems)센서를 만드는 핀란드의 VTI테크놀로지를 인수했고, 2013년 6월에는 자회사를 통해 NEC의 자기저항센서 사업부문을 M&A 하였음
 - 2013년 8월에는 수정진동자를 만드는 도쿄전파(東京電波)를 완전 자회사로 합병 하였음
 - 무라타제작소의 이러한 기업 인수는 앞으로 자동차 분야의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었음
- 자동차가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움직였는지를 감지하는 MEMS센서는 미끄럼사고를 방지하는 장치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선진국뿐 아니라 신흥국에서도 앞으로 보급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미 중국에서는 현지 부품업체로부터 MEMS 센서 구매 타진을 받고 있음
- 무라타제작소가 자동차부품사업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이유는 스마트폰 시장동향에 좌우되지 않는 사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임
- 무라타제작소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스마트폰 부품 비중은 2014년 말 기준으로 40%에 육박하고 있음
- 애플이 ‘아이폰 5’ 생산을 갑자기 축소한 2012년 말부터 2013년 초에 걸쳐 수주액이 줄어 무라타제작소를 포함한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았던 일본의 전자부품업체가 타격을 입었음
- 반면 자동차부품 사업은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신흥국을 중심으로 앞으로 자동차 보급이 늘어날 것이 기대되고 자동차 1대에 탑재되는 전자부품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임
 - 배기가스규제를 극복하기 위해 마이크로컴퓨터(microcomputer)로 엔진을 제어하게 되었던 1970년대 이후, 자동차에는 전동 파워스테리어링과 파워윈도우 등과 같은 전장시스템이 연이어 탑재되었음
 -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자동차와 같이 구동부분의 전동화가 가세하면서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지금은 ‘자동안전’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단계에 이르러 있음
- IHS그룹에 따르면 자동차 1대당 전자부품
 - (전지와 모터 등을 제외한 반도체) 탑재금액은 2000년 210달러에서 2012년 316달러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
 - 2016년에는 약330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스마트폰과 같은 급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은 확실해 보임
- 1960년부터 와이퍼용 모터 등에 자석을 공급해 온 TDK도 자동차가 점차 전자화되면서 콘덴서와 코일, 전원장치 등과 같은 전자부품 거래를 확대해 왔음
 - 특히 혼다가 ‘인사이트’를 189만 엔의 저가에 판매하고, 이에 대항하여 도요타자동차가 3세대 ‘프리우스’를 기존 모델보다 약30만 엔 저렴한 205만 엔에 판매하기 시작했던 지난 2009년 이후 일본에서는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이 가속화되었음
 - 이 같은 하이브리드자동차 판매 확대는 종래 가솔린자동차와 더불어 TDK의 자동차용 전자부품사업이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음
 -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솔린 자동차 한 대당 차지하는 전자부품의 코스트비율은 20%정도이고,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우는 50%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세계 자동차 수요가 급감했던 리먼 사태 직후에도 TDK의 자동차 부문 사업의 매출은 증가했었음
 - 앞으로 자동차 한 대에 사용되는 전자재료 및 전자부품 가치는, 특히 전동화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지금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부문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또 다른 일본의 전자부품업체 ROHM(로움)의 2013년도 매출에서 차지하는 자동차부문의 비율이 25.6%로 전년대비 2.0%포인트 상승했음
 - ROHM의 자동차용 LSI분야는 일본 국내 시장 매출이 대부분인 상태이며, 2013년 9월에 자동차용 대형 반도체업체인 미국 Freescale Semiconductor의 일본법인과 협업한다고 발표하면서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음
 - 또한 산업기기용으로 대량생산하고 있는 파워반도체는 종래의 실리콘 반도체보다 소비전력이 적고 하이브리드자동차와 전기자동차의 인버터에 사용하면 연비상승과 항속거리 연장이 가능함
 - 앞으로 전략적인 성장제품으로 설정하고 자동차업체에 적극적으로 제안활동을 해 나간다는 계획임
- 전자부품업체의 향후 과제는 납품하는 자동차업체와 자동차부품업체로부터 점차 거세지고 있는 코스트 삭감 요청에 대한 대처임
 - 6개월이나 1년마다 새로운 기종이 투입되는 스마트폰과는 달리 상품 사이클이 긴 자동차용 거래는 비교적 안정적 거래를 기대할 수 있음
 - 그러나 전자부품 탑재량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그만큼 차체가격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가절감 활동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자동차업체 특유의 납품가 인하 요구는 매년 반복될 가능성이 높음
 - 일본 전자부품업체는 매년 생산성이 높

아지는 만큼 환원을 요구하는 자동차업체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가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전산(日本電産)은 부가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음
 - 주력 생산제품인 모터를 단품으로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모터를 제어하는 전자제어장치(ECU)와 함께 조립해서 공급하고 있음
 - 이전에도 일본전산은 다른 회사로부터 ECU를 사서 모듈화한 적은 있으나, 최근에 혼다의 ECU자회사를 매수하는 것을 결정했다고 발표했음
 - 모터만 공급하는 것보다 모듈화 제품을 공급하면 이익률이 2~3배로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원래 일본전산은 하드디스크 구동장치(HDD)용 초소형 모터 분야에 경쟁력이 있었으나 최근 PC시장 축소로 사업구조를 전환하고 있음
 - 자동차와 산업기기용 모터 분야로 점차 경영자원을 옮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2) 파나소닉의 자동차부품 시장 진출

- 지난 2013년 봄 파나소닉은 회사 재건을 목표로 자동차부품시장 진출을 포함한 새로운 중장기 경영계획을 발표했음
 - 계획대로라면 2018년에 2조 엔(약243억 달러, 발표당시 환율 1달러=79엔으로 환

〈표1〉 세계 자동차부품업체 매출 규모 순위

순위	업체명	2011년 매출 규모
1	보쉬(독일)	422억 6,300만달러
2	덴소(일본)	392억 600만달러
3	콘티넨탈(독일)	304억 9,400만달러
4	아이싱정기(일본)	280억 4,200만달러
5	마그나 인터내셔널(캐나다)	260억 5,800만달러
6	존슨 콘트롤즈(미국)	259억 4,000만달러
7	현대모비스(한국)	237억 2,500만달러
8	포레시아(프랑스)	225억 500만달러
9	ZF(독일)	191억 8,700만달러
10	TRW오토모티브(미국)	162억 4,400만달러

자료: 日経ビジネスONLINE, ‘パナ自動車部品世界7位の夢’, 2013년 4월 8일에서 인용

산)의 매출규모가 되기 때문에 세계 자동차부품업체 중에서 미국의 존슨 콘트롤즈(johnson controls)에 이은 7위로 부상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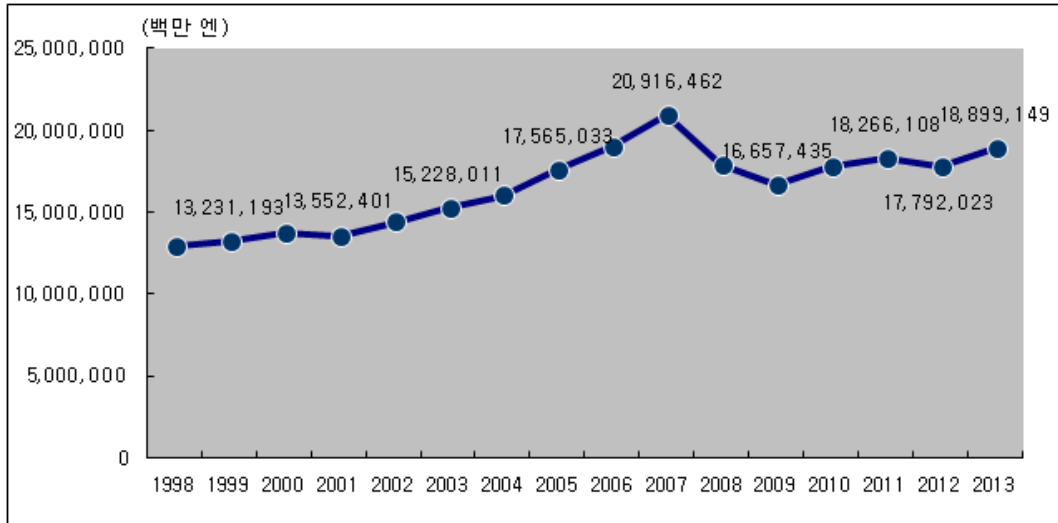
- 그러나 세계 자동차부품 업계 세계 7위가 되겠다는 야심찬 계획은 구체성이 떨어진다라는 이유로 투자자들은 대체로 실망스러운 반응을 보였음
- 일반적으로 자동차업체 생산계획은 향후 몇 년 후까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파나소닉의 자동차부품사업 매출액은 급격히 증가하기는 쉽지 않을 것임
 - 파나소닉이 신규 수주를 예상하는 것은 2016년 이후이지만, 계획대로 계약 건수를 늘린다하더라도 현재 파나소닉의 능력으로는 2018년 매출액 1조 5000억 엔까지 늘리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보임
- 파나소닉은 중장기 경영계획을 통해 기존 9

개 사업군(사업영역별 사업본부)을 앞으로 4개의 회사로 집약한다고 발표했다

- 그 중 하나인 2013년 4월 1일자로 발족시킨 ‘오토모티브 & 인더스트리얼시스템즈’가 차량용 부품사업을 담당하게 됨
- 현재 취급하고 있는 제품은 카 내비게이션 시스템과 오디오, 속도센서, 카메라모듈, ETC(요금 자동 지불 시스템)단말기, 환경대응차량의 리튬이온전지, 차량충전 시스템 등임
- 파나소닉은 비연속적인 성장으로 독일의 보쉬와 일본의 덴소와 견줄 수 있는 자동차부품 업체가 되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으나, 가전업체가 엔진관련 부품 등 자동차 핵심부품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적임
- 자동차부품 분야는 앞으로 계기판과 스테어링 등 운전석 주변에서 높은 부가가치가 창

- 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현재 파나소닉의 생산 라인업은 전기전자 업체의 강점을 살리고 있는 부분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다소 산발적이기 때문에 관련성이 적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파나소닉이 목표로 하고 있는 2조 엔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M&A가 필요하지만, 세계 자동차부품 상황은 결코 녹록치 않은 상황임
 - 자동차 업체의 부품조달은 독일의 폭스바겐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공통화하는 부분과 차별화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음
 - 글로벌 시장에서 제품 라인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상품의 다양성과 비용절감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기 때문임
 - 이러한 업계 변화는 한 회사에 대량으로 발주하는 경향을 가속시키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M&A의 결과 보쉬와 셰플러(schaeffler) 등의 2대 공급업체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 도요타자동차와 닛산자동차도 폭스바겐과 같은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앞으로 부품업체 도산과 M&A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임
 - 이처럼 파나소닉의 자동차부품시장 진입에 대해 회의적인 전망이 많은 편이지만, 평면 TV 등의 디지털제품에서 BtoB 시장으로 경영의 중심축을 이동시키는 자체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 몇 해 전 파나소닉의 차량용 전지부에서 큰 성과를 거둔 적이 있었는데, 폭스바겐과의 오랜 협상 끝에 하이브리드 차량용 리튬이온전지를 납품하게 되었기 때문임
 - 파나소닉과 같이 리튬이온전지의 불량발생률이 1ppm(100만분의 1)이하인 기업은 매우 적어 납품이 가능했기 때문에 파나소닉은 이와 비슷한 전략을 추진한다면 앞으로도 자동차부품 분야에서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음
 - 리튬이온전지 등 친환경 차량용부품 분야에서는 분명히 파나소닉 등의 전기전자 업체가 경쟁력이 있음
 - 파나소닉이 목표로 설정한 2018년에 친환경 자동차가 일본 및 미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보급이 확산된다면 종래의 내연기관 자동차산업이 형성한 부품공급체계가 무너져, 파나소닉에게도 기회가 생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님
- ## 2. 일본 자동차부품 생산 현황 및 주요 기업 실적
- ### 1) 생산현황
- 일본자동차부품공업회가 회원사 실적을 기준으로 집계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자료에 따르면 일본 자동차부품 출하액은 2009년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그림2>참조)
 - 20조 엔을 초과했던 2007년 이후 출하액이 감소했지만 최근 다소 회복되는 경향

〈그림2〉 일본 자동차부품 생산액 추이



자료: 일본자동차부품공업회(<http://www.japia.or.jp>) 홈페이지 발표 자료를 근거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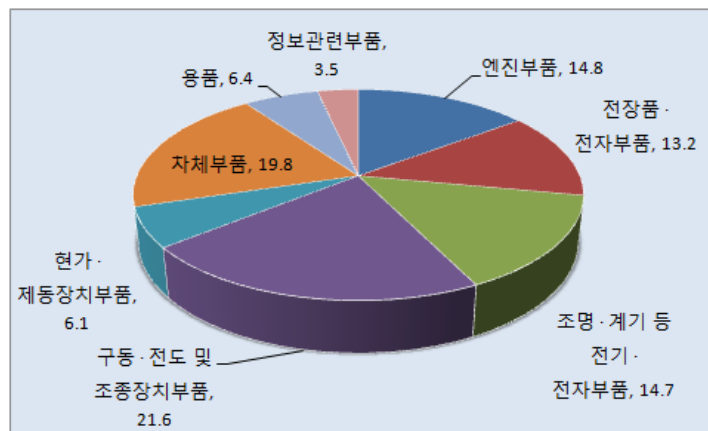
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음

- 2013년 일본자동차부품 출하액은 18조 8991억 엔으로 전년대비 6.2% 증가했음
- 그러나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의 해외진출이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일본 국내 부품출하액이 크게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각각의 자동차부품 생산 점유율을 살펴보면 차체부품과 구동·전도 및 조종장치부품의 비중이 크게 나타남(<그림2> 참조)
- 2013년 실적 기준으로 전체 자동차부품

〈그림2〉 2013년 품목별 일본 자동차부품 출하액(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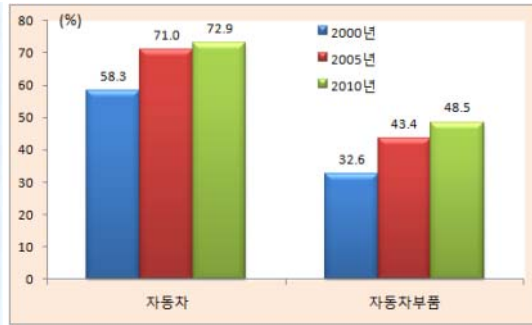


자료: 일본자동차부품공업회(<http://www.japia.or.jp>) 홈페이지 발표 자료를 근거로 작성

〈그림3〉 일본자동차 국내생산과 해외생산 추이(2000-2010년)



〈그림4〉 일본 자동차·자동차부품의 해외생산비율



자료: 次世代の自動車産業戦略(仮称)検討会, 平成25年度製造基盤技術実態等調査, 2014년2월24일(ATKearney)에서 인용

중에서 19.8%가 차제부품이며, 21.6%가 구동·전도 및 조종장치부품임

- 정보관련 부품의 비중은 3.5%에 불과하지만 차세대 자동차 보급이 확산되면서 앞으로는 이 비중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앞에서 언급한대로 일본 자동차업체는 물론 자동차부품업체의 해외생산 비중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음(<그림3>, <그림4>참조)
- 자동차의 경우, 2000년에 58.3%였던 해

외생산 비율이 2010년에 72.9%로 확대되었으며, 자동차부품 역시 2000년 32.6%에서 2010년 48.5%로 증가했음

- 이 같은 추세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심화와 맞물려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임

2) 업계 구조 및 주요기업 실적

- 일본자동차부품업체의 58.6%(313개사 중 167개사)가 전체 매출의 90%이상이 자동차부품인 전업기업임(<표2>참조)

〈표2〉 일본 자동차부품 업체의 자동차부품 전업 비율

자동차부품비율	회사 수	출하액(백만엔)	구성비(%)	전년대비(%)
90%이상	167	11,069,165	58.6%	106.0%
70%이상90%미만	62	5,495,829	29.1%	103.6%
50%이상70%미만	35	773,856	4.1%	106.7%
30%이상50%미만	19	588,639	3.1%	120.8%
30%미만	30	971,660	5.1%	116.0%
합계	313	18,899,149	100.0%	106.2%

자료: 일본자동차부품공업회, '자동차부품출하동향조사결과' 2013년도에서 인용

〈표3〉 일본 자동차부품 출하액 규모별 자동차부품 전업 비율

자동차부품 출하액 구분	30%미만	30%이상 50%미만	50%이상 70%미만	70%이상 90%미만	90%이상	합계
2,000억엔 초과	1	1	1	4	15	22
1,000억엔 초과 ~ 2,000억엔 이하	1	0	2	6	11	20
500억엔 초과 ~ 1,000억엔 이하	2	1	1	11	21	36
300억엔 초과 ~ 500억엔 이하	1	3	0	13	19	36
100억엔 초과 ~ 300억엔 이하	6	5	6	14	40	71
100억엔 이하	19	9	25	14	61	128
합계	30	19	35	62	167	313

자료: 일본자동차부품공업회, ‘자동차부품출하동향조사결과’ 2013년도에서 인용

- 자동차부품전업비율이 70%이상~90%미만 업체는 29.1%이며 30%미만인 기업은 5.1%에 해당하는 30개사임
- 전업비율이 90%이상인 자동차부품업체는 전년대비 6.0%포인트 증가했으며,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은 30%이상~50%미만 업체임
- 자동차부품 출하액 규모별 자동차부품 전업 비율을 살펴보면 출하액 규모가 클수록 전업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동차부품 출하액이 2,000억 엔 넘는 22개 기업 중에 전업비율이 90%이상인 기업은 15개 업체임
- 반면 출하액이 100억 엔 미만인 128개 자동차부품업체 중에서 전업비율이 90%이상인 업체는 절반 정도인 61개 업체임
- 출하액이 100억 엔 초과 300억 엔 이하인 자동차부품업체도 전체 71개 업체 중에

〈표4〉 일본 자동차부품 업체 2014년도 상반기 경영실적

	2013년 상반기	2014년 상반기	전년동기차이	전년동기대비
매출액	115,700	123,647	7,947	+6.9%
영업이익	6,931	6,997	66	+1.0%
매출액영업이익률	6.0%	5.7%	-0.3pt	-
경상이익	7,742	7,808	66	+0.8%
매출액경상이익률	6.7%	6.3%	-0.4pt	-
당기 이익	4,355	4,110	-245	-5.6%
매출액당기이익률	3.8%	3.3%	-0.5pt	-

자료: 일본자동차부품공업회, ‘2014년도 상반기 자동차부품공업의 경영동향’ 2014년 12월 12일 보도자료에서 인용

서 절반이 훨씬 넘는 40개 업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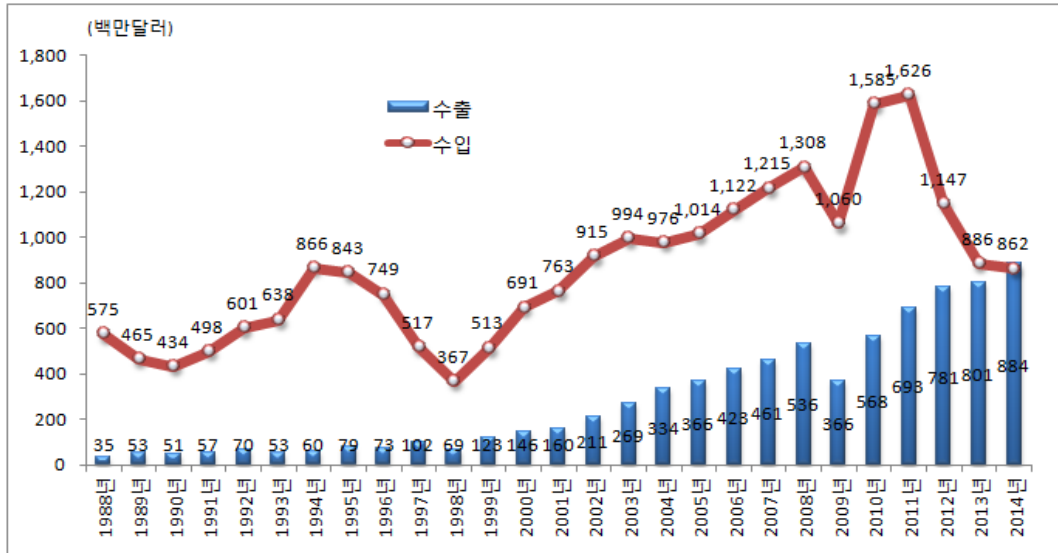
- 일본자동차부품공업회가 82개 자동차부품업체의 경영실적을 취합하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 상반기 일본 자동차부품업체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6.9%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일본 국내시장에서 소비세율 인상 등의 감소요인이 존재했지만 해외사업이 호조를 보였고, 환율도 증가에 영향에 미친 것으로 평가됨
 -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1.0%, 경상이익은 0.8% 증가했지만 당기이익은 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앞서 언급한대로 최근 일본 자동차부품업체의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은 해외시장에서의 판매호조와 더불어 환율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임
 - 또한 생산합리화 등의 수익개선책의 효과도 영업이익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앞으로 자동차부품업체의 경영실적에 영향을 미치게 될 요인으로, ‘완성차업체 공장의 해외이전’, ‘해외거점에서의 생산능력 확대투자에 따른 감가상각비 부담 증가’, ‘신흥시장에서의 정치사회적 혼란’, ‘원료가격 인상’, ‘노무비 증가’, ‘에너지 비용 증가’ 등을 들 수 있음
 - 실제 최근 일본 자동차부품업체의 수익구조를 살펴보면 매출원가율, 판매관리비용 상승에 따른 이익률 감소가 나타나고 있으며, 영업외수익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3. 한일 자동차부품 무역 현황

1) 최근 무역 동향

- 한국의 자동차부품 대일 무역수지는 2013년 8천400만 달러 적자로 1억 달러 미만의 적자로 감소한 후 2014년에는 약2천 300만 달러의 사상 첫 흑자를 기록했음
 -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자동차부품은 2013년 총266억 3천600만 달러 수출을 기록하며 한국의 3대 수출품목으로 부상하였으며, 품목별 순위에서도 처음으로 4위를 기록하는 등 한일 무역불균형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2014년 한국 자동차부품의 대일무역이 흑자를 기록한 것은 엔저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음
 - 무역수지의 변화가 나타난 것은 일본으로의 자동차부품 수출이 꾸준히 증가한 것도 있지만 2011년 이후 일본에서의 자동차부품 수입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점이 주요했던 것으로 보임
 - 2010년 및 2011년만 하더라도 한국의 대일 자동차부품 무역수지는 약1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었음
- 또한 지난 2011년 동일본대지진과 더불어 2000년대 들어와 지속되었던 엔고 영향으로 일본의 주요 완성차 업체가 해외 조달을 확대하고 있는 점도 한일 자동차부품 무역수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됨
 - 일본 완성차 업체가 리스크 분산을 위해 부품 조달처를 다원화하고 있고, 비용절감을 위해 공격적으로 해외 조달을 늘리고 있음

〈그림5〉 한국의 대일 자동차부품 무역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 특히 최근 세계시장에서의 현대자동차 인지도 상승과 맞물려 일본 완성차업체의 한국 자동차부품 거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나고 있음

- 자동차부품 중에서 ‘자동차용조명기기’, ‘차륜 및 부속품’, ‘내연기관용 전기용품’, ‘현가장치 및 부품’, ‘클러치 및 부품’은 이전부터 한국이 일본보다 수출경쟁력(무역특화지수를 근거)이 우위에 있었음

2) 한일 자동차부품 경쟁력 비교

- 일본정책투자은행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일간 자동차부품 경쟁력에 변화가 나타

〈표5〉 한국 자동차부품 업체의 최근 일본과의 거래 실적

	거래 일본 기업	공급 제품	금액
현대모비스	미쓰비시	LED헤드램프	2억달러
	후지중공업	리어램프	3,300만달러
만도	닛산자동차	쇼크업소버(Shock absorber)등	410억원
S&T대우	다이하츠	쇼크업소버(Shock absorber)	-
한라공조	마츠다	에어콘부품	3,800억원

자료: 日本政策投資銀行産業調査部, ‘自動車産業における韓国部品サプライヤーの変化’, 今月のトピックNo. 187-9(2013.2.19.)에서 인용

- 또한 최근 한일간에 경쟁력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자동차부품 분야는 ‘브레이크 및 부품’, ‘타이어’ 등임
- 상기 2개의 자동차부품은 자동차의 중요한 요소인 안전과 관련되는 부품인데, 최근 한일간 수출경쟁력이 역전되었음
- 최근 국산 타이어가 일본에서 신차에 표준 장착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일본자동차용품점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바탕으로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뿐만 아니라 현재 일본의 경쟁력이 우위에 있는 ‘전도축(傳導軸)’, ‘가스터빈 과급기’도 한국과의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음
- 한편 ‘피스톤 및 부품’, ‘여과기’ 등은 한국에 비해 일본이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임
- 종래 한국의 수출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던 ‘기어박스 및 부품’도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이 수출을 강화하고 있음
- 전반적으로 엔진 및 구동과 관련된 분야에서 한국의 수출경쟁력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일본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자동차부품에는 한국에 생산거점을 두고 있는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가 생산하는 제품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전망됨
- 그렇다 하더라도 규슈(九州)의 닛산자동차가 부품의 약90%를 규슈 주변 지역과 한국 및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에서 조달할 방침을 표명하는 등 일본 완성차 업체가 가격경쟁력이 있는 한국 자동차부품 업체와의 거래를 확대하고 있음
- 브랜드파워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

동차 본체와는 달리 자동차부품의 상당 부분은 품질과 비용을 만족하면 거래는 얼마든지 증가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음

4. 시장 전망 및 시사점

1) 일본 자동차부품업체의 향후 전략

- 지금까지 현대자동차가 꾸준히 국내외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워왔듯이 이를 지탱해 온 한국의 자동차부품업체도 성장을 거듭해 오고 있음
- 따라서 앞으로 일본 자동차부품업체의 경쟁 환경은 점차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부품의 공용화 및 표준화와 모듈화 움직임 등 자동차 제조 자체도 크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임
- 자동차부품업체는 비용의 대폭적인 삭감을 위해 단순한 개선의 연장선상이 아닌 근원적인 생산개혁이 필요해 질 것으로 보이며, 현상을 바꾸는 제안능력이 한층 더 요구되는 상황이 도래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국내거점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의 자동차부품업체는 유망분야로의 집중과 전환 등을 신속하게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앞으로 한일 자동차부품 업체가 서로 협업 할 수 있는 분야도 존재할 것으로 전망됨
- 무엇보다 먼저 인접해 있다는 점을 이용한다면 물류상의 장점을 활용한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일본 자동차부품업체들이 한국과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영역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비롯한 차세대자동차 기술 등, 앞으로 중요시되는 환경, 안전, 에너지 등을 생각할 수 있음

- 일본 자동차부품업체는 한국과의 이러한 협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 효과에 의한 비용절감과 차세대기술 표준 형성 등의 실질적인 이득을 챙길 수 있을 것임
- 뿐만 아니라 한일 자동차부품업체 쌍방이 상대적으로 경쟁우위에 있는 영역을 활용한 모듈화 등의 보완도 상정할 수 있음
-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완성차업체가 해외시장에서 사업 확대를 점차 확대시켜나가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자동차부품업체는 이에 따른 수요에 대응하면서 해외에서의 과실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리소스의 유효 활용이 어느 때보다 필요해질 것으로 전망됨
 - 또한 한일 자동차부품업체는 리스크 회피를 위해 해외거점의 상호협용과 공동 진출도 생각해 볼 수 있음
 - 이미 급속충전방식(CHAdemo)와 유럽기업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차체 소프트웨어 공동화조직(AUTOSAR)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세계표준 확립 등 공통의 과제에 대해 한일이 서로 협력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시사점

- 국제적으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는 한국 자동차부품업체가 안고 있는 과제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임

- 일본 업체들과 비교해 보면 기술력은 물론 재무능력 측면에서도 큰 차이가 존재함
- 또한 국내 서플라이체인 기반이 되는 2,3차 협력업체는 1차 협력업체와의 기술력과 재무능력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특히 2,3차 협력업체의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제안 능력이 큰 과제로 거론되고 있음
- 지금까지 2,3차 협력업체들은 특히 현대자동차와의 거래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를 유지해 왔으며, 이로 인해 자체적인 기술적 노하우를 구축하는 노력을 경시해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따라서 앞으로 현대자동차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경영상의 리스크 요인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음
- 특히 특허출원과 관련하여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의 관계를 한일간 비교해 보면, 한국 자동차부품업체의 앞으로의 과제가 여실히 드러남
 - 일본 자동차부품업체가 완성차업체와 같은 규모의 특허를 출원하고 보유하고 있는 것에 반해 한국은 완성차업체가 특허출원과 보유를 견인하면서 부품업체는 부품제조에 전념하는 역할 분담을 하고 있음
 - 부품업체의 연구개발에 있어서도 일본에 비해 한국이 낮은(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 등은 개선할 필요

<참고자료>

1. 코트라, ‘日 자동차부품, 하이브리드용 부품생산 전략은,’ 해외시장정보, 2014년 9월 11일
2. 日本政策投資銀行産業調査部, ‘自動車産業における韓国部品サプライヤーの変化’, 今月のトピックNo. 187-9(2013.2.19.)
3.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
4. 일본자동차부품공업회, ‘2014년도 상반기 자동차부품공업의 경영동향’ 2014년 12월 12일 보도자료
5. 일본자동차부품공업회, ‘자동차부품출하동향조사결과’ 2013년도
6. 次世代の自動車産業戦略(仮称)検討会、平成25年度製造基盤技術実態等調査、2014年2月24日(ATKearney)
7. 日経ビジネスONLINE, ‘パナ自動車部品世界7位の夢’, 2013년 4월 8일

의료기기

〈포인트〉

- 의료기기 사업은 수익성이 뛰어나고 향후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큰 분야이지만, 안정적인 성장국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
- 일본 국내 의료기기 시장은 외국계 대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분야가 적지 않아 진입장벽이 높은 편임
- 따라서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로 진출 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임

1. 최근 업계 동향

1) 소니의 의료기기 사업 전망

- 소니가 야심차게 시작한 의료사업이 과연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정착하게 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TV 등 종래 핵심사업의 수익개선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사업의 성공여부는 소니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임
 - 소니는 그 동안 디지털가전 분야에서 배양한 독자기술과 소비제품의 독창적 발상을 응용하여 새로운 신규 수요처로 의료기기 분야를 설정하고 지난 수년간 시장개척에 주력해 오고 있음
 - 그러나 일본은 물론 주요 선진국의 고령화 등의 사업 환경변화로 의료사업은 분명 성장산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반면 개발에서 인가를 얻어 수익을 확보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도 있음
 - 따라서 의료기기 사업은 속도와의 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업영역으로 간주되고 있음
- 지난 2007년 일본 의료기기의 대부분이 외국제품이라는 현실 앞에 소니가 저렴하면서 작동이 간편한 세포분석 장치를 만들어 줄 것을 일본의 이공학계로부터 요구가 있었음
 - 세포분석 장치는 혈액·면역·암 등의 여러 연구 분야를 비롯한 최첨단 영역에서 그 해석수단이 되는 중요한 기기임
 - 일본은 당시 오랫동안 미국에서 제조되는 크고 사용하기 복잡할 뿐 아니라 전문가만 작동할 수 있는 5천만~1억 엔에 육박하는 기기를 사용하고 있었음
 - 세포의 크기와 종류를 식별하는 장치의 구조가 고속회전하면서 미세한 틈에 기록된 정보를 레이저 빛으로 읽어내는 광디스크 기술과 흡사하기 때문이었음
 - 새로운 분야 개척을 위해 광디스크 연구진이 준비하고 있었고, 이를 계기로 조직적으로 분산되어 있던 의료관련 기술의 연계가 전사적으로 움직이지 시작하면서 의료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전략에 대한 검토에 속도가 붙었음
- 이런 과정을 거쳐 소니에서 개발된 이 장치의 판매는 현재까지는 성공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 소니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사개발 1호기인 세포를 분석하는 Cell Sorter의 판매는 2013년에 일본 국내에서 약 40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후지경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Cell Sorter의 일본 국내시장 규모는 100대이기 때문에 소니가 개발한 이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약40%를 차지한 것에 해당됨
 - 소니 제품 가격은 약 2,000만 엔으로 타사 동일 제품과 비교하여 절반정도의 수준에 불과함
 - 작동하는 전문가가 따로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다른 회사 제품에 비해 크기도 3분의 1수준으로, 종래제품으로는 확보하기 어려웠던 여러 분야의 연구자들을 새로운 고객으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세포분석 장치 시장은 2개의 미국회사가 세계시장의 약 70%를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소니는 이 분야의 세계시장이 2018년까지 1,500억 엔, 연10%의 높은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소니는 2017년까지 일본 국내시장에서 벗어나 해외시장을 공략하여 시장점유율 30% 이상을 확보한다는 계획임
 - 경제산업성은 세포분석 장치와 시약 등 재생의료 주변산업의 세계시장이 2012년 2,400억 엔에서 2020년에 1.1조엔, 2030년에는 5.2조 엔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소니가 내시경 분야에서 높은 실적을 쌓은
- 올림퍼스와 제휴하여 재생의료분야에 진출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높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 소니의 TV사업 규모가 5,800억 엔(2012년 실적)인 것과 비교하면 의료사업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지만 일반적으로 의료기기의 이익률은 20~30%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디지털가전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임
 - 따라서 의료사업은 규모가 작더라도 회사 이익에 공헌하는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업체들의 존재감이 커서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의료기기 분야임
- 일반적으로 의료기기는 의사가 인턴시절부터 사용했던 기기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고 연구자도 데이터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동일한 업체의 기기를 지속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는 개발에서 허가까지 적지 않은 많은 시간이 걸리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
 - 외과 내시경 분야에서 올림퍼스와 공동으로 개발한 제품도 출하까지 무려 4년이 걸린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기술적 차별화를 구현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디지털시대에 디지털가전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새로운 사업 확대를 모색했던 소니에게 세포분석 장치는 우연의 산물이었는지 모름
- 시장성을 확인하기 위해 의료진들과 힘겨운 작업을 계속했고, 시장에 진출했을

〈표1〉 일본 이업종의 의료기기 시장 진입 사례

기업	사 업 내 용
소니	- 올림퍼스에 출자하여 소니올림퍼스메디컬솔루션즈 설립 - 소니의 자체 영상기술과 올림퍼스의 내시경기술을 융합한 제품 개발
캐논	- 디지털카메라 분야에서 축적한 화상센서 기술을 살려 암의 조기발견을 가능하게 하는 화상진단장치 개발
아사히인텍	- 자동차 액셀에 들어가는 구동용 와이어를 전용하여 심장 카테터(Katheter)와이어 개발
아시히카세이	- 미국 대형의료기기 업체 존메디컬을 인수 - 인수금액은 1,840억 엔으로 아시히카세이의 최대 규모

때는 치열한 경쟁이 기다리고 있었음

-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GE) 산하의 GE 헬스케어도 라이프사이언스 분야를 강화하고 있고, 2013년 11월부터 비교적 저렴한 고성능 세포분석 장치를 일본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안정적 성장이 기대되는 의료기기 시장으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광학기계업체, 기계업체, 섬유업체 등이 연이어 진입하고 있는 상황임(<표1> 참조)
- 소니는 그 동안 본업 분야의 실적이 나빠질 때 마다 앞으로 의료분야를 강화하겠다고 대내적으로 발표해 왔으나, 지금까지 그다지 바뀐 것이 없다는 평가를 하는 전문가들도 있음
- 소니는 2014년 10월말 TV와 PC 등의 판매부진으로 연결순이익 전망을 500억 엔에서 300억 엔으로 하향 발표
- 뿐만 아니라 전자로닉스사업 분야의 흑자 규모도 당초 1000억 엔에서 수백억 규모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수익을 유지하기 위한 분야로 설정한 의료사업의 성장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음

- 소니는 의료사업으로 ①올림퍼스와의 합병으로 개발하고 있는 외과용 내시경 등 의료기기 분야, ②세포분석 장치 및 간편진단기기 등 라이프사이언스 분야, ③모니터 및 프린터 등 의료용주변기기 분야 등 3분야를 강화하고 있고, 2020년에 매출 2,000억 엔을 목표로 하고 있음

2) 아베노믹스와 의료기기 산업

- 의료기기를 포함한 의료산업은 아베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장전략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의료비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 같은 추세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됨(<표2> 참조)
-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5년에는 3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음(<그림1>, <그림2> 참조)
- 따라서 경기부양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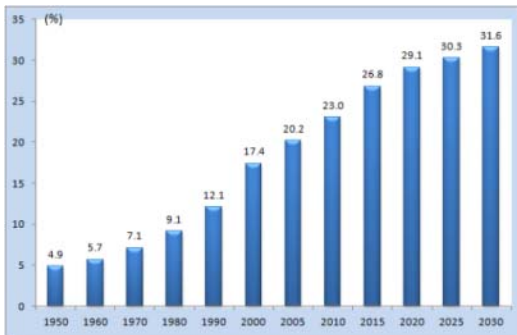
〈표2〉 일본 의료비 최근 동향

(단위: 조엔,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의료비	33.4	34.1	35.3	36.6	37.8	38.4
의료비 증가율	3.1	1.9	3.5	3.9	3.1	1.7
1일당 의료비 증가율	4.1	3.2	4.1	3.8	3.2	2.6
진찰일수 증가율	▲0.9	▲1.3	▲0.6	0.1	▲0.1	▲0.9

자료: 코트라 해외시장정보, '일본 의료기기분야 규제 완화, 시장 확대 기대', 2013년 9월 12일

〈그림1〉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 추이



자료: 総務省, '国勢調査'에서 인용

〈그림2〉 건강에 관해 '고민과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추이



자료: 内閣府, '国民生活に関する世論調査'에서 인용

는 각종 규제완화로 의료기기 분야의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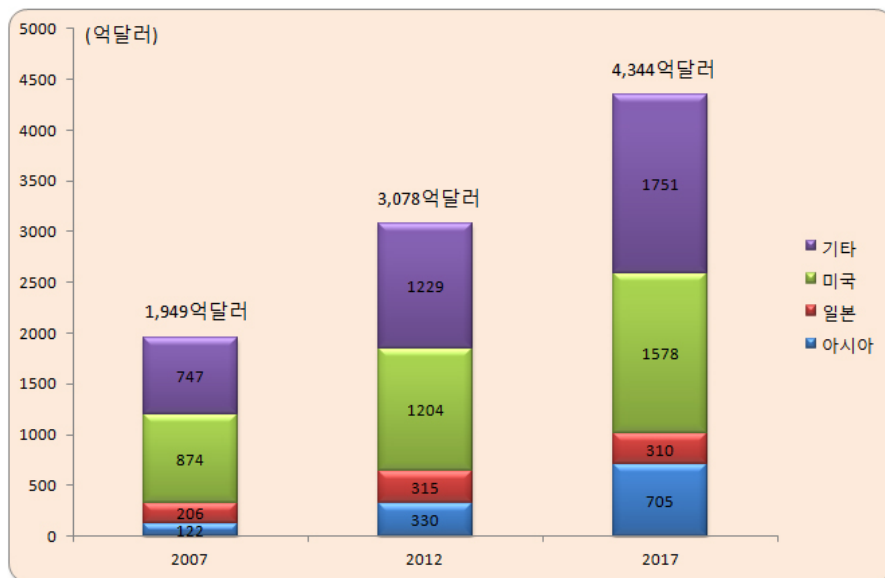
- 일본 정부는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기기 분야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련 사업을 규제하고 있는 상황임
 - 일본 약사법에 따르면 의료기기는 사람 혹은 동물의 질병진단, 또는 예방에 사용되는 것 또는 사람 또는 동물의 신체구조 또는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기구를 뜻함
 - 의료기기는 치료기기와 진단기기로 나눌 수 있는데, 치료기기는 레이저치료기, 스

텐트, 카테터 등이 있고, 진단기기는 X선 CT장치, 초음파 화상진단장치, 내시경 등을 들 수 있음

- 일본은 의료기기 중에서 진단기기는 제품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나 치료기기는 오랫동안 수입에 의존해 오고 있는 상황임
 - 일본의 치료기기 수입비중은 약40%로 달하고 있어 해외 우수 관련업체를 인수하기 위해 일본기업들이 노력하고 있음
- 한편 그 동안 일본에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의료기기 시장이 확대되지 못한 이유는 의료기기의 가격체제와 더불어 약사법에 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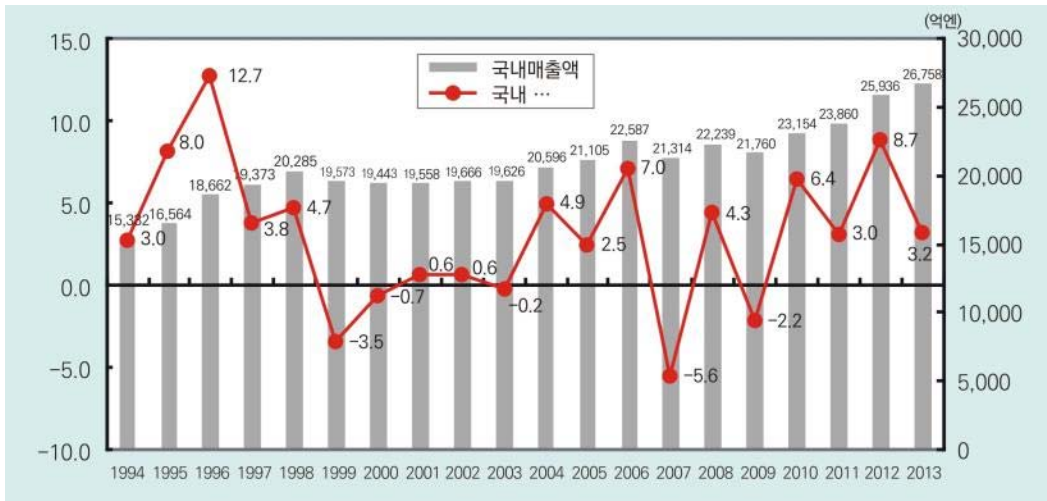
- 른 각종 규제를 지적하는 경우가 많았음
- 의료기기 가격이 제품분류 혹은 재료에 따라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품 자체의 부가가치라고 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가격차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 이런 문제로 의료기기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기업이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개발하려는 유인이 적어지게 됨
 - 한편 의료기기를 인증받기 위한 심사절차가 까다로워 제품이 실용화되기까지의 기간이 구미 선진국에 비해 1년 이상 더 필요한 상황임
 - 따라서 최근 의료기기 심사기관인 의약품 의료기기종합기구(PMDA)가 인력을 보충하는 등 개선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의료산업의 시장 확대 가능성을 평가한 일
- 본정부는 최근 다양한 지원정책을 내놓으며 적극적인 산업육성에 나서고 있음
-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으로 지정된 의료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2012년 6월에 ‘의료개혁 5개년계획’이 발표되었으며, 아베정권 출범 이후인 2013년 6월에는 ‘건강·의료전략’이 제시되었음
 - 이번 전략에는 의료기기 육성을 위해 ① 병원과 기업의 제휴를 통한 의료기기 개발지원, ②업계로부터의 제안을 반영한 약사법 개정, ③신속하게 심사할 수 있는 인증체제강화, ④보험적용에 대한 제품 성능·혁신 평가, ⑤해외 진출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졌음
- 아베정권은 최근 미국의 국립위생연구소(NIH)의 성격을 지닌 ‘일본판 NIH’인 MEJ(Medical Excellence Japan) 설립을 확정

〈그림3〉 세계 의료기기 시장 전망



자료: みずほ情報総研レポート, ‘日本の医療機器産業が世界市場で勝ち抜くためには’ 2014년 11월에서 인용

〈그림4〉 일본 의료기기 시장규모



자료: 厚生労働省, 薬事工業生産動態統計年報에서 작성

- 미국의 국립위생연구소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할 기관은 일본의 의료분야 연구개발을 진두지휘하게 될 전망이다
- 지금까지 일본의 의료분야는 연구와 생산이 분리되어 있어 개발이 순조롭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음
- 따라서 구조를 통합하여 적절한 예산을 배분하고 이에 따른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또한 일반사단법인으로 출범하는 MEJ는 일본 의료사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인재를 육성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임
- 일본 정부가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 의료기기 분야를 적극적으로 육성하려는 것은 앞으로 관련한 시장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임
- 2012년 3,078억 달러의 규모인 세계 의료기기시장이 2017년에는 4,344억 달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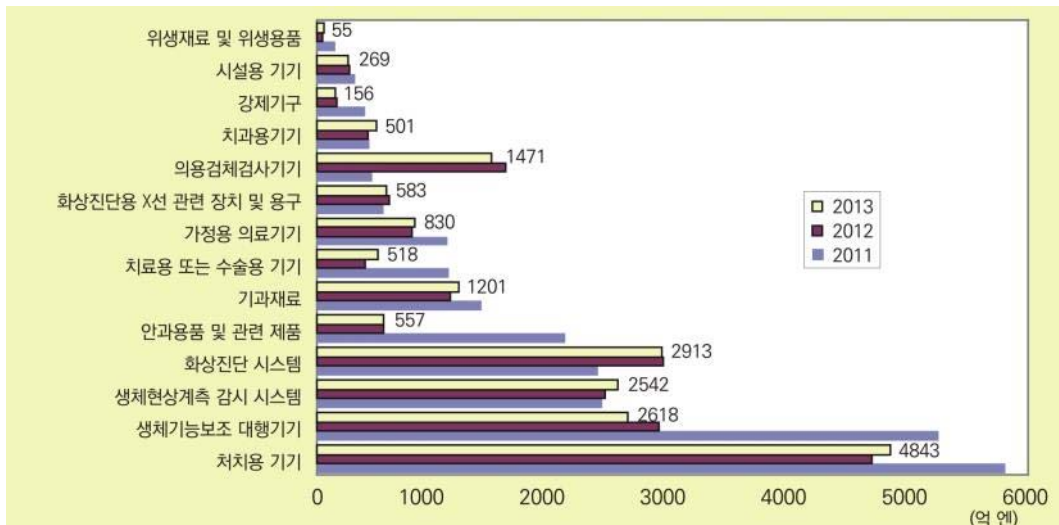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그림3> 참조)

- 향후 세계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10%에 육박하는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비교적 아시아 지역에서의 성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2017년에 705억 달러의 시장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2. 시장 규모

- 일본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2013년 기준으로 2조 6,758억 엔임
- 국내 매출액 기준으로 본 일본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20년 전에 비하며 약1.5배 증가했지만 안정적인 성장 기초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과거 매출신장률을 살펴보면 국내외 사업 환경 변화에 따라 큰 폭의 등락을 거듭하

〈그림5〉 일본 의료기기 제품분류별 시장 규모 추이



자료: 厚生労働省, 薬事工業生産動態統計年報에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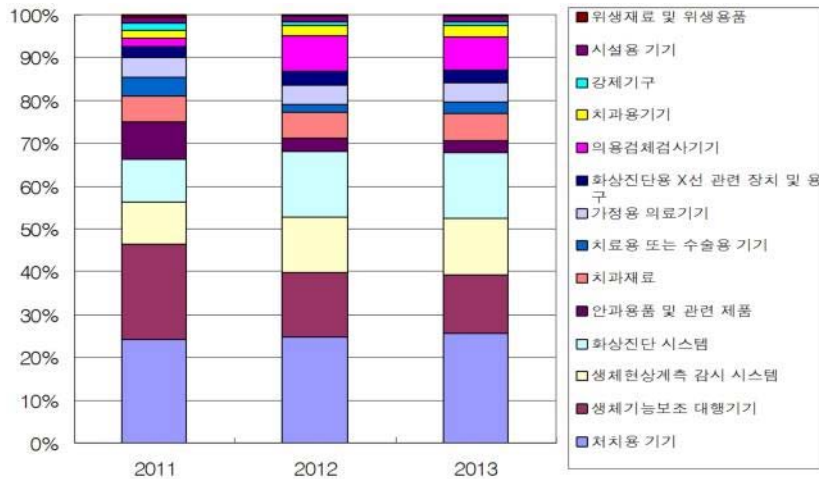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그림4> 참조)

- 의료기기 생산액을 제품분야별로 살펴보면 가장 시장규모가 큰 분야는 수액용기구 등이 포함된 처치용기기로 2013년에 4,843억 엔임(<그림5> 참조)
 - 화상진단시스템은 2,913억 엔, 이어서 인공관절, 투석기, 심장페이스메이커 등과 같은 생체기능보조 대행기기로 시장규모는 2,618억 엔을 기록했음
 - 이들 3개 분야가 일본 의료기기 시장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비중은 매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그림6> 참조)
 - 한편 생체현상계측감시시스템 분야의 생산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3년에 2,542억 엔의 생산액을 기록했음
- 일본 국내 의료기기 업체 규모를 보면 월평균 생산규모가 백만 엔 미만의 기업이 전체 (2013년 기준 1,419개 기업)의 43.5%(617

개 기업)를 차지함(<그림7> 참조)

- 생산규모 월평균 1천만 엔 미만의 기업이 전체 기업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일본 의료기기 업체는 작은 규모의 기업들이 많은 편임
- 5억 엔~10억 엔 미만의 월평균 생산을 기록하고 있는 업체는 20개(전체의 1.4%)이며, 1억 엔~5억 엔 미만 기업은 118개(전체의 8.3%)임
- 2012년 대비 2013년 생산규모별 업체 수를 살펴보면 생산규모가 큰 기업 수는 줄어든 반면 생산규모가 작은 기업 수는 증가했음
 - 백만 엔 미만 기업 수는 2012년에 599개였으나 2013년에 617개로 증가했으나, 5억 엔~10억 엔 미만 기업 수는 2012년에 23개에서 2013년에 20개로 감소
- 한편 일본 의료기기 전체 생산에서 차지하는 생산규모별 기업의 비중을 살펴보면 월평균

〈그림6〉 일본 의료기기 제품분야별 매출액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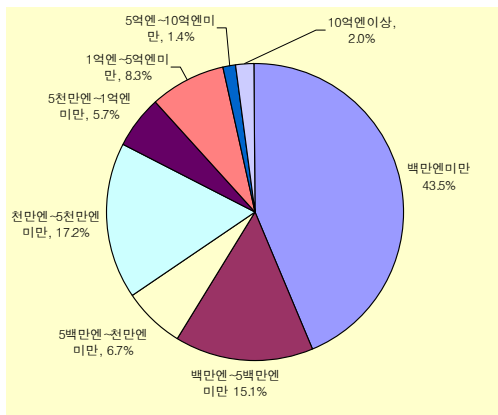


자료: 厚生労働省, 薬事工業生産動態統計年報에서 작성

생산규모가 10억 엔 이상 기업의 2013년 생산액이 의료기기 전체생산의 62.0%를 차지하고 있음(<그림8> 참조)

- 월평균 10억 엔 이상의 생산을 기록하고 있는 28개(기업 수로는 전체의 2.0%) 업체가 전체생산의 62.0%를 차지하는 전형적인 과점 형태를 보이고 있음

〈그림7〉 생산규모(월평균)별 업체 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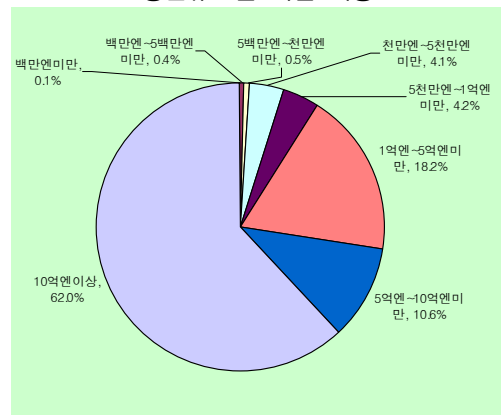


자료: 厚生労働省, 薬事工業生産動態統計年報에서 작성

3. 무역동향 및 업계구조

- 의료기기 국내 생산액은 2013년에 전년대비 0.5%포인트 증가한 1조 9,055억 엔을 기록했음(<그림9> 참조)
- 2009년 전년대비 마이너스 6.9%를 기록한 이후 매년 4~8%의 성장세를 보였으나

〈그림8〉 의료기기 전체생산에서 차지하는 생산규모별 기업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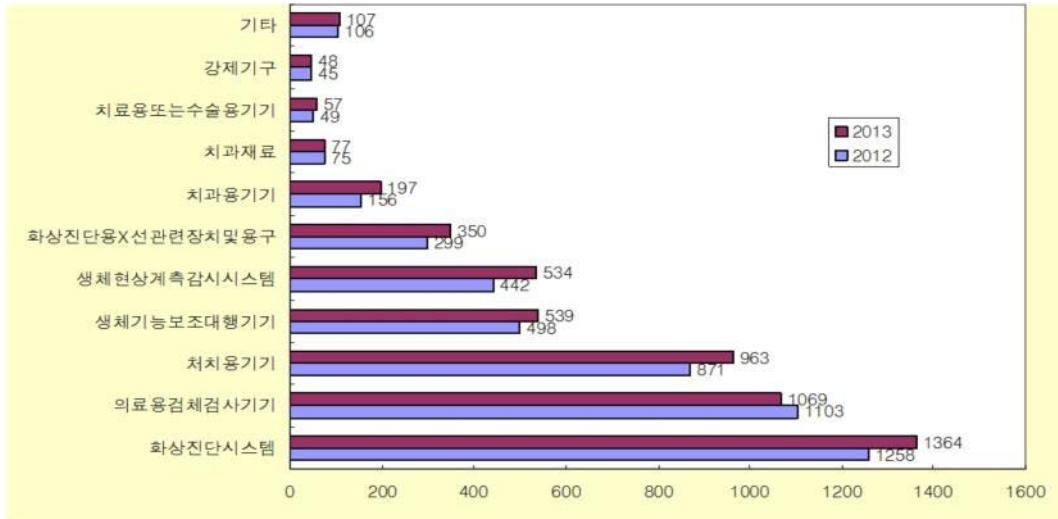
〈그림9〉 일본 의료기기 생산액 및 수출입액 추이



자료: 厚生労働省, 薬事工業生産動態統計年報에서 작성

- 2013년에는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었음
- 그러나 생산규모는 꾸준히 성장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성장세는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임
- 전체 생산에서 차지하는 수출비중은 2011년 26.6%에서 2012년 41.2%로 증가한 이후 2013년에는 27.8%로 줄어들었음
 - 일본 의료기기 대외수출은 2009년과 2010년 연이어 전년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나 그 이후 3년 연속 전년대비 플러스 실적을 기록하고 있음
 - 2011년은 4,808억 엔으로 전년대비 6.1%포인트 증가했고, 2012년에도 4,901억 엔으로 전년대비 1.9% 수출이 확대되었음
 - 2013년에는 처음으로 5천억 엔대의 수출 실적으로 올리며 전년대비 8.3%포인트 상승했음
- 의료기기 제품별 수출실적을 2013년 실적 기준으로 살펴보면 화상진단시스템과 의료용 검체검사기기 등 두 분야가 전체 수출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그림10> 참조)
 - 화상진단시스템은 전체 수출의 25.5%에 해당하는 1,363억 엔, 의료용검체검사기는 전체 수출의 20.2%의 1,069억 엔의 수출실적을 기록했음
 - 2013년 수출실적이 가장 크게 증가한 분야는 처치용기기 분야로 2012년 전체 수출의 17.8%에서 2013년에 18.2%로 확대되었음
- 일본 의료기기의 2013년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지역별로 살펴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은 유럽임(<그림11> 참조)
 - 아시아지역이 일본 의료기기의 두 번째 수출 지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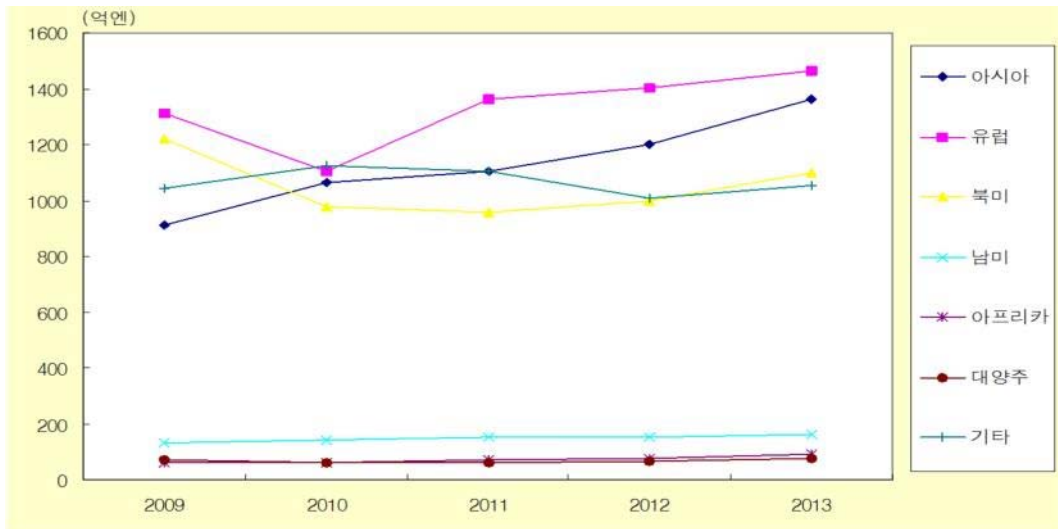
〈그림10〉 일본 의료기기 제품별 수출액 추이



자료: 厚生労働省, 薬事工業生産動態統計年報에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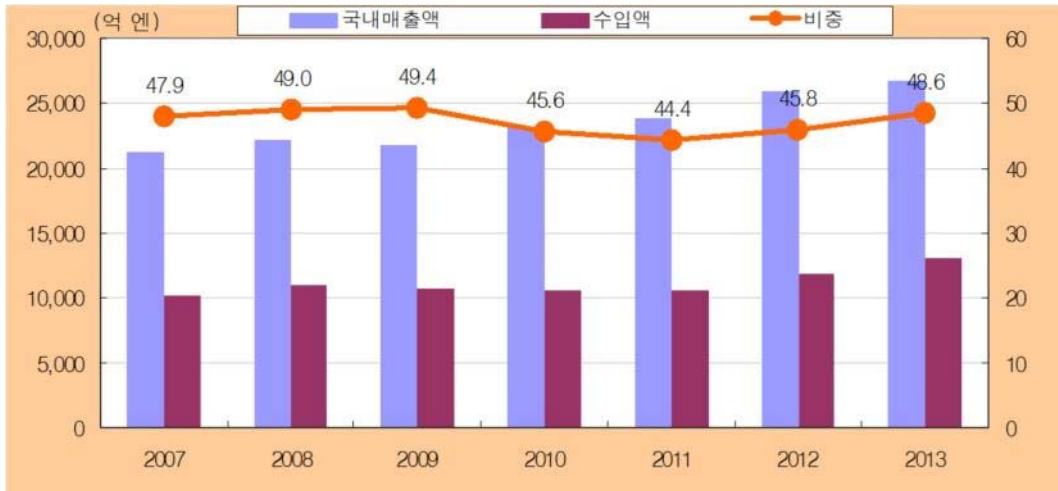
- 유럽, 아시아, 북미 등 3개 지역으로의 수출이 전체 수출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지역으로 수출이 최근 증가하고 있음
- 아시아지역으로 수출은 2009년 대비 약 50% 증가하였으며 일본 의료기기 수출 대상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임

〈그림11〉 일본 의료기기 지역별 수출 실적 추이



자료: 厚生労働省, 薬事工業生産動態統計年報에서 작성

〈그림12〉 일본 의료기기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수입 비중



자료: 厚生労働省, 薬事工業生産動態統計年報에서 작성

- 의료기기 무역수지를 살펴보면 수입이 수출을 7,703억 엔 초과하고 있는 상태로, 의료기기 산업 전체로는 수입초과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그림12> 참조)
- 국내매출액에서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44.4%까지 하락했다가 2012년 45.8%, 2013년 48.6%로 다시 증가하

는 추세임

- 특히 수입초과 현상이 돋보이는 의료기기 분야는 치료기기이며, 반면 진단기기는 일본 국내시장에서 차지하는 수입이 비중이 낮은 편임
- 또한 일본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의료기기 분야는 콘택트렌즈를 비롯한 안과용

〈표3〉 일본 의료기기 주요국별 수출액(백만엔)

	2013년	2012년
미국	102,066	93,156
중국	63,699	59,043
독일	62,532	62,813
네덜란드	39,218	37,129
벨기에	14,023	12,363
한국	11,034	9,929
브라질	8,306	7,141
인도	7,858	6,118
홍콩	7,224	7,386
오스트리아	7,202	6,360
기타	207,335	188,618

〈표4〉 일본 의료기기 주요국별 수입액(백만엔)

	2013년	2012년
미국	611,421	586,666
아일랜드	141,051	124,062
독일	111,579	96,128
중국	99,642	75,413
네덜란드	47,053	39,257
스위스	39,498	38,092
영국	30,451	21,581
싱가포르	27,258	23,106
태국	26,013	20,084
푸에르토리코	23,628	19,191
기타	143,222	144,808

자료: 厚生労働省, 薬事工業生産動態統計年報

품 칩 관련제품임

- 한편 일본 의료기기의 대외수출을 주요 나라별로 살펴보면, 미국, 중국, 독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표3>, <표4> 참조)
- 미국, 중국, 독일 등 3개국 합계가 전체 수출의 약45%를 차지하고 있음
- 일본 의료기기의 대한국 수출은 2012년 99억 엔에서 2013년에 110억 엔으로 증가

- 오사카(大阪)에 소재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의료기기는 안정적인 수주와 시장의 성장성 등에 대해 높은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그림13> 참조)
- 특히 의료기기는 개별 고객의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다품종소량생산과 주문생산에 유리한 중소기업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함
- 또한 첨단기술에 대한 도전과 기회 그리고 사회공헌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장점도 함께 가지고 있는 분야임

4. 시장 전망 및 시사점

1) 시장 전망

- 일본의 의료기기 시장은 고령화와 건강의식 고조 그리고 해외 신흥국의 소득향상에 따라 앞으로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임
- 일반적으로 이러한 다품종소량생산에 적합한 제품의 시장은 비교적 규모가 작은 시장인 경우가 많음
- 이러한 작은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새롭게 시장진입에 성공한 일본의 의료기기

<그림13> 의료기기 사업의 매력 (n=124)



자료: 商工振興, ‘大阪府内中小製造業の医療関連機器事業への取組の実態’, 2014.11에서 인용

- 업체는 사업 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이후에 시장을 더 세분화하여 특화하면서 경영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한 경우가 많음
- 즉 작은 시장에서 의도적으로 더 작은 시장을 찾아 상대적 장점을 부각시키는 전략으로 성공하는 경우임
 - 소품종 대량생산의 색채가 강한 위생용품 시장에서 성공한 일본의 중소기업은 대기업 경쟁사가하기 어려운 다양한 품목을 갖추고, 이 분야에 특화하고 있는 특징이 나타남
 - 일본 의료기기 시장에서 성공하는 기업은 분명한 사업전략과 차별화전략으로 무장된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음

2) 시사점

- 아베정권은 의료법 개정을 통해 규제를 더욱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일본 의료기기 시장은 보다 활성화되면서 외국기업에게도 일본 국내 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의료기기는 한국의 여러 기업들이 일본 국내시장 진출을 시도하고 있지만 여러 법규와 인증절차 등이 까다로워 성공한 사례가 극히 드문 분야임
- 그러나 앞서 확인한대로 일본 의료기기 업체는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치료기기 시장은 지멘스 등 외국계 대기업이 일본 국내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작은 틈새시장을 찾아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로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외국계 대기업은 탄탄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과감한 투자를 단행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음
- 이러한 연구개발 결과로 얻어지는 성과가 시장 확보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규모의 경제에 의한 시장독식 현상이 나타나는 것임
- 앞으로 의료기기 분야는 IT기술이 접목되면서 첨단기술의 각축장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개별 기업 차원의 노력과 더불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상대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참고자료>

1. REUTERS, '焦点：ソニーが医療事業に本腰、収益確保へスピード課題', 2013년 11월 27일
2. 東洋経済On Line, 'ソニー細胞の画像分析装置を商品化' 2014년 9월 25일
3. 코트라 해외시장정보, '일본 의료기기분야 규제 완화, 시장 확대 기대', 2013년 9월 12일
4. 海上泰生(2013년11월), '医療健康衛生機材産業において新規参入を成功に導く緒要素', 日本政策金融公庫論集, 第21号
5. 商工振興, '大阪府内中小製造業の医療関連機器事業への取組の実態', 2014.11
6. 厚生労働省, 薬事工業生産動態統計年報
7. みずほ情報総研レポート, '日本の医療機器産業が世界市場で勝ち抜くためには' 2014년 11월
8. 総務省, '国勢調査'
9. 内閣府, '国民生活に関する世論調査'

소재 · 부품

〈포인트〉

- 최근 일본 소재 · 부품기업은 소재 · 부품 수요기업의 해외진출과 국내 전력비용 급등으로 생산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고 있음
- 대량생산을 하는 소재 · 부품기업은 글로벌 공급체제를 갖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외진출을 하고 있는 반면 다품종소량생산을 하는 소재 · 부품기업은 일본 국내시장에서 생존전략을 강구하고 있음
- 특히 일본국내에서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는 소재 · 부품기업은 경쟁이 비교적 치열하지 않은 분야로 사업 영역을 변화시키고 있음

1. 최근 업계 동향

1) 소재 · 부품산업의 국제화 대응

- 일본 소재 · 부품산업 중에서 특히 금형과 금속프레스 업종은 이익률이 낮고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반면 금형과 금속프레스보다 해외진출이 늦은 주조와 금속열처리 등의 업종이 이익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장치산업인 주조와 금속열처리와 비교하면 금형과 금속프레스의 기업규모가 작은 것도 영향을 주고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처럼 두 업종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 소재 · 부품산업에서 ‘해외진출을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가설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금형과 금속프레스 업종의 경영환경이 다른 업종에 비해 어려운 것은 외국 업체와의 경쟁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임
 - 이 같은 배경에는 CAD/CAM과 NC공작 기계의 발달로 기술이 설비에 체화되어 해외로 유출되기 쉽고, 이로 인해 인건비가 낮은 신흥국에서도 숙련기능공이 없어도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구현하는 금형과 프레스부품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
 - 그동안 일본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며 기능과 노하우의 집결체로 불렸던 금형도 ‘디지털 마이스터’로 대표되듯이 ‘기능의 기술화’가 진전되고 있음
 - 또한 일본 고유의 기술이 수치제어가 되어 설비와 함께 해외로 유출됨으로써 해외기술과의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음
- 한편 주조와 금속열처리 분야는 아직 노후에 의존하는 부분이 적지 않음
 - 특히 주물은 ‘제품에 대한 신뢰도는 제품을 구성하는 각 부품의 신뢰도를 곱한 수치에 의해 결정된다는’ 법칙이 적용되는 분야임
 - 따라서 최종제품의 품질은 각각의 공정별 품질관리가 곱한 수치로 나타나기 때문에 최신설비를 도입하는 것만으로 좋은 주물을 만들 수 없음
 - 금속열처리도 마찬가지로 작업현장의 ‘분

위기'을 조정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노하
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치제어만으로는
양질의 물품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고 함

- 결론적으로 일본 소재 · 부품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외진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와 같은 국제화전략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님
- 중요한 것은 기술전파 속도를 어떻게 조
정할 것이며, 이를 근거로 자사의 경쟁우
위를 어떻게 유지할 것 인지임
- 또한 경쟁우위를 유지하고 확립한다는
것은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싸워 이기
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사의
도메인을 경쟁하지 않는 시장으로 지혜
롭게 이전시키는 것을 의미함
- 경쟁에서 싸워 이긴다는 것은 가격경쟁
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모전
을 강요당하게 됨

2) 소재 · 부품산업의 에너지 대응

- 동일본대지진으로 발생한 원자로폭발사고
의 영향을 받아 전력요금이 인상된 이후 주
조 및 금속열처리, 분말야금(粉末冶金) 등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소재 · 부품산
업의 경영압박이 우려되고 있음
- 실제 각국의 에너지 비용을 비교해보면,
일본은 한국, 미국에 비해 총출하량에서
차지하는 에너지비용의 비중이 약간 높
게 나타남
- 그러나 전력요금 그 자체만을 비교해보
면, 정부가 전략적으로 전력요금을 상대
적으로 낮추고 있는 한국에 비해서는 매
우 높지만, 유럽과의 격차는 그렇게 크지

않으며 이탈리아는 일본보다 전력요금이
비싼 편임

- 한편 원전에서 완전히 탈피할 것을 선언
하고 자연에너지로 선회한 독일도 비교
적 전력요금이 높은 편이며 향후 전력요
금에 대해서도 독일주조협회가 강한 우
려를 표명하는 등 일본과 비슷한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해있음
- 주조와 열처리 등과 같은 장치산업은 전력비
용이 싸다고 해서 간단하게 해외생산으로 전
환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
비용은 분명히 중요한 경쟁요인이 됨
- 그러나 일본 소재 · 부품과 치열한 경쟁
을 하고 있는 독일도 결코 에너지비용
측면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임
- 일본 소재 · 부품산업에 있어서 에너지비용
문제는 계속해서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으
며, 원자력 문제에 대한 대응과 더불어 미
국 셰일가스 혁명에 따른 세계 에너지 수급
동향도 주목해야 할 것임

2. 일본 이외 국가의 소재 · 부품산업 지원정책

1) 중국

- 중국에서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5개년계
획이 모든 산업경제의 기본이 되고 있음
- 소재 · 부품산업에 대한 중국의 지원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
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중국정부는 제7차 5개년계획(1986~1990

년)에 금형산업을 중점육성 산업으로 지정하고, 1989년에는 ‘당면 산업정책 요점에 관한 중앙정부 결정’에서 금형산업을 중요한 산업 중 하나로 간주했음

- 제10차 5개년계획(2001~2005년)에서 과학기술부는 ‘대형주조·단주물의 거시적 발전 전략’을 제정하고, 프레스금형, 플라스틱금형, 단조금형 등의 기술개발 안건을 설정했음
- 제11차 5개년계획(2006~2010년)에서도 국가과학기술 지원계획의 중점 프로젝트로 ‘대형주조·주조물제조 핵심 기술과 설비연구개발’을 실시하여, 정부가 10년 동안 지원하고 10억위엔이 넘는 연구자금을 투자했음
- 2011년부터 시작된 제12차 5개년계획에서도 소재·부품산업은 중점산업으로 설정되었음
- 중국금형공업회는 중국을 ‘금형제조대국’에서 ‘금형제조강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로 2010년에 제12차 5개년계획 기간 중(2011~2015년)의 ‘금형산업발전

계획’을 발표했음

- 중국주조협회도 제12차 5개년계획 기간 중에 ‘주조산업발전계획’을 책정하였음
- 주조업계의 구조개혁을 추진하여, 현재 3만개 기업을 1만개로 줄이고 생산규모를 기업 당 2,500t 이상으로 올린다는 계획임
- 또한 5대전략으로 (1)품질향상, (2)에너지 및 자원 절감, (3)집약화, (4)자주기술, (5)인재육성을 설정하고, 에너지 삭감 30%, 주조기술·대형생산설비 국산화·자동차부품 국산화 비율 95%를 달성할 목표를 세움
- 한편 중국단압(鍛壓)협회는 제12차 5개년계획 기간의 발전목표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함
- (1)평균에너지소비 비율 20% 삭감, (2)평균재료 소비 비율 4% 삭감, (3)전체 종업원 노동생산효율 2배, (4)종업원 급여 80~100% 향상 등의 구체적 목표를 제시함

〈표1〉 중국 ‘금형발전계획’

1. 금형제품의 구조조정(고부가가치 금형, 고품질의 금형 표준부품, 고성능의 금형재료 발전)
2. 금형기업을 ‘大×强’, ‘小×專’으로 발전(대기업이 발전하면서 중소기업은 전문성이 높은 고정밀 분야로 유도)
3. 국내시장 개척
4. 산업연계에 따른 정보화, 수치화, 정밀화, 자동화, 표준화의 가속화
5. 현대서비스업의 발전(서플라이체인인 발전)
6. 산업발전모델을 ‘규모의 확대’에서 ‘기술수준 향상’으로 전환
7. 국가의 중점발전산업에 맞는 정부지원
8. 기능인 육성

〈표2〉 미국 제조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 ▷ 제조업과 그 경쟁력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낮음
- ▷ 제조업 회복으로 연결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충분한 수단이 없음
- ▷ 정부와 규칙준수에서 파생하는 비용이 너무 높음
- ▷ 이노베이션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 노력이 부족함
- ▷ 교육과 훈련을 위한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음
- ▷ 글로벌 경쟁을 자유, 개방, 그리고 공평하게 추진하기 위한 정책이 없음

2) 미국

업종 횡단적 제언이 제시되어 있음

- 미국에서는 소재 · 부품산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시책을 찾아보기는 어려우며, 중소기업지원, 금융지원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 주요 시책으로는 2004년에 미국 상무성이 발표한 ‘미국의 제조업의 과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전략 (Manufacturing in America: A Comprehensive Strategy to Address the Challenges with US Manufacturers)’이 있음
 - 이 전략에는 미국제조업이 직면한 과제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열거하고 있으며 각 과제에 대해 63개 항목으로 구성된
- 최근 미국정부는 제조업을 대상으로 국내로 회귀하는 것에 대해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2011년 6월에는 산학관이 공동으로 제조업 분야에서 고용을 창출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진흥기술에 투자하는 국가적 프로젝트로 ‘선진제조파트너십(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을 발표하고 총 5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
 - 2012년 2월에는 국가과학기술회의(NSTC) 산하의 기술위원회가 ‘국가선진제조전략 계획(National Strategic Plan for Advanced

〈표3〉 미국 NSTC ‘국가선진제조전략계획’의 5대 목표

항목	개요
중소기업에 의한 투자 가속	관민이 협조하여 공동투자, 정부에 의한 초기조달, 안전보장을 위해 중요한 영역 중점화
기능 노동력의 강화	주와 지방의 교육 · 훈련 커리큘럼 조정, 기술교육 프로그램과 견습제도에 대한 지원강화
파트너십 창설	관과 민, 정부와 지방 간의 협조관계 구축과 이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촉진, 관민 파트너십에 대한 정부투자 확대, 지역산업클러스터 활용
연방정부투자의 조정	선진재료, 제조기술 플랫폼, 선진제조과정, 데이터 · 디자인 기반의 4개 분야에 있어서 연방정부투자 포트폴리오의 중점화와 균형 도모
선진제조연구개발의 관민 투자 증대	시험연구비세액공제의 항구화, 연방R&D투자 증액

Manufacturing)을 작성하여, 다음과 같은 5대 목표를 설정하였음

- 오마바대통령은 2013년 2월 12일 연설에서 제조업의 국내유턴촉진을 표명한바 있음
 - 미 정부는 제조업의 국내유턴을 촉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지원책으로 제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38%에서 타 업종보다 낮은 25%까지 인하하고, 다국적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에 최저세율을 부과하는 제도도입의 검토, 제조업을 주요산업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특별 지원할 것을 발표함

3) 독일

- 독일에서는 1990년대 강직된 고비용 구조와 비판받아 온 국내입지 환경정비에 착수했음
 - 독일은 통일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산업공동화 문제에 직면하면서 1994년에는 ‘경제성장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액션 프로그램’을 발표하였고, 그 직전의 1993년에는 법인세를 50%에서 45%로 인하하고 노동시간법 개정을 결정하였음
- 1990년대 후반부터 인큐베이션정책과 노동정책에 이어 법인세감면을 핵심으로 하는 세제개혁이 산업정책의 중심이 되었음
 - 2000년 1월에는 중견 중소기업과 관련한 세제개혁도 단행했음
 - 당시 동서독 통합으로 나타난 경제적 제반 문제가 우선시되었고 노사정 3자 논의를 거쳐 높은 임금체계 수정 및 실업대책 등이 강구되었음
- 또한 전통적인 수공업 마이스터의 규제완화와 같은 성역으로 여겨졌던 사회시스템개혁에도 착수했음
- 당시 이러한 일련의 개혁은 강직했던 독일의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그러나 동서독 통일로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해 있던 독일은 그 이후 EU통합으로 탄생한 유럽 단일시장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게 됨
 - 제조업에 강점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주효했지만 독일은 영국과 스페인 등의 공업 국가를 포함한 유럽지역을 자국의 시장으로 흡수하는데 성공했음
- 일본과 비슷하게 독일도 고도의 기술력을 갖춘 많은 중소기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독일 제조업의 기반을 탄탄한 편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M&A가 활발히 진행된 결과, 일본의 중소기업보다도 대체로 규모가 크며, 오랫동안 대기업의 하청구조 속에 있었던 일본의 중소기업과 달리 독일의 중소기업은 독립적인 경영을 잘 하는 기업이 적지 않음
- 한편 2006년 8월에 독일정부는 ‘하이테크 전략(Hightech-Strategies)’을 발표했음
 - 이것은 독일연방정부가 발표한 첫 번째 연구개발 및 이노베이션을 위한 포괄적인 전략으로, 장래 가장 중요한 시장에서 독일이 최고가 되는 목표를 가지고 작성되었음
 - 이 하이테크전략에는 하이테크신흥기업

과 혁신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공적 펀드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 가령 중소기업으로부터의 위탁연구를 실시하는 공적연구조직에 대한 연구보너스(또는 연구프리미엄)를 정책으로 도입하여 공적연구에 대한 중소기업의 적극성을 촉진하고 있음
- 또한 독일의 직업훈련에 대해서는 시대변화에 맞게 수정하여 노동시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혁하고 있음

3. 독일 및 한국과 비교한 일본 소재 · 부품사업의 강 · 약점

1) 독일 소재 · 부품산업 현황

- 독일 제조업은 동유럽을 포함한 EU시장 출현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소재 · 부품산업도 그 은혜를 받고 있음
- 독일이 수출하는 주물은 주로 EU시장으로 수출되고 있었기 때문에, 관세철폐뿐 아니라 사람의 이동도 비교적 자유로운 통일된 시장 출현은 독일 국내시장이 그대로 확대된 것과 같은 효과를 향유하고 있음
- 또한 인건비가 저렴한 동유럽이 EU에 포함됨으로써 독일의 소재 · 부품기업 중에는 동유럽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할 목적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한 공장을 동유럽에 새롭게 만들어 다품종소량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만드는 독일내 공장과 분업체계를 갖추고 있는 곳도 있음

- 독일 소재 · 부품기업에서 나타나는 경영상

의 특징은 M&A를 통한 규모 확대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시장 세분화가 진행되는 점을 들 수 있음

- 환경규제가 비교적 엄격한 독일에서는 환경대책을 위한 투자부담을 견디지 못하는 소규모 기업이 도태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우수한 주물업체가 대기업 산하로 편입되는 등 일본에 비해 소재 · 부품 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의 종업원 규모가 비교적 큰 것이 특징임
- 도태되는 과정에서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추진하면서 독일 국내에서는 사업영역의 세분화가 진행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철저한 합리화 · 자동화를 통한 비용절감, 가격경쟁과는 확실하게 거리를 두고 가격을 중시하는 자동차업체에서 철폐하여 공작기계 등의 산업용기계 분야로 사업의 무게를 옮겨, 부가가치가 보다 높은 사업전략을 취하는 기업도 있음
- 주물 제조업 분야에서는 대형주물을 장점으로 하는 기업이 풍력발전 등의 사업에 진출하는 사례도 있음
- 독일 소재 · 부품산업의 기술적 특징으로는 ‘사이언스 주도형’을 들 수 있음
- 독일은 대학보다 민간 기업에 근무하는 연구자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이 있기 때문에 민간 기업에 우수한 기술자가 몰리는 경향이 있음

2) 한국 소재 · 부품산업 현황

- 소재 · 부품산업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상대적인 강점은 정부정책으로 특정 산업과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임

- 막대한 대일무역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은 특히 부품·소재 산업의 육성에 적극적이며, 그 중에서도 이른바 뿌리산업에 많은 자원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임

- 한편 최근에는 대기업과의 격차 시정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많은 공을 들이고 있음
- 특히 한국 자동차제조업체와 협력관계에 있는 여러 중소부품업체는 강한 계열거래관계에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한국 자동차제조업체가 신흥국 등 해외에 공장을 신설하게 되면, 자사공장 근처에 사이언스파크를 건설하여 주요 부품공급업체와 함께 진출하는 경우가 있음
- 한국은 IMF 금융위기 당시 기업 내부의 구조조정과 함께 특정 기업이 특정 사업영역을 담당하는 등의 철저한 생산효율성을 추진했었음
- 그 결과 해외의 우수 업체와 경쟁하기 이전에 국내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일본기업과는 달리, 한국 업체는 국내시장에서는 경합하는 소모전 없이 힘을 축적할 수 있었음
- 이러한 이유에서 대기업들은 중소기업과의 밀접한 분업 체계를 유지할 수 있었음

3) 일본 소재·부품산업 강약점

- 일본은 리먼사태 이후 소재·부품 수요기

업(발주기업)과 소재·부품 제조기업(수주기업)의 거래관계가 크게 변화하면서, 수주기업은 해외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소재·부품기업은 국내시장에 남는 현상이 나타났음

- 이른바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시아가격’이 일본으로 유입되면서 경쟁우위를 확보하지 못하면 치열한 가격경쟁에서 생존하기 어려운 구도가 되어가고 있음
- 반면 독일은 앞서 언급한대로 EU통합으로 국내시장이 확대되는 혜택을 입고 있으며, 또 다른 경쟁국가인 한국은 국내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운 제조업체와 공급업체가 함께 해외로 진출하는 생산전략으로 해외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음

4. 소재·부품 수요산업의 조달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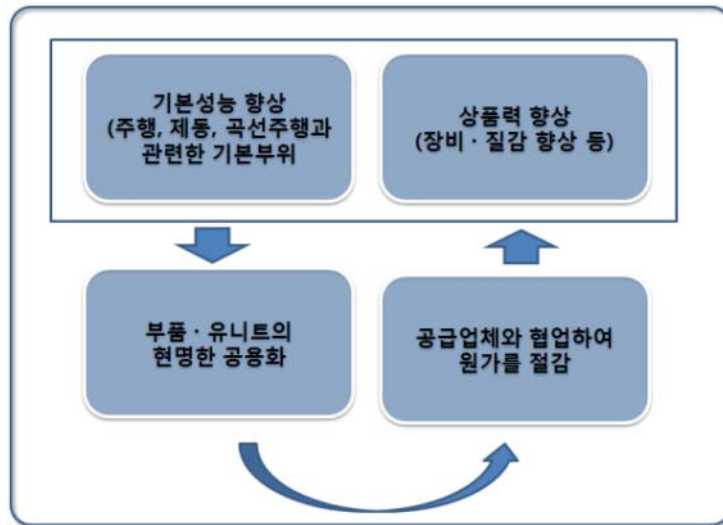
1) 일본 주요 소재·부품 수요업체의 조달 방침 및 동향

- 소재·부품산업의 중요한 수요분야인 일본 자동차업체가 2009년 이후 부품 조달방향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음
- 조달 동향을 보면, (1)조달기업 압축, (2) 현지조달(글로벌 조달), (3)부품의 표준화 및 모듈화 등을 들 수 있음
- 도요타자동차는 차종별 개별발주에서 복수의 차종을 묶어서 발주하는 방식으로 조달방향을 변경함
- 국가 및 지역별 발주방식을 글로벌 규모로 일괄발주로 바꿔 부품 발주량을 최대화하고 조달비용을 대폭적으로 인하함

〈표1〉 일본 자동차업체 및 Tier1업체의 조달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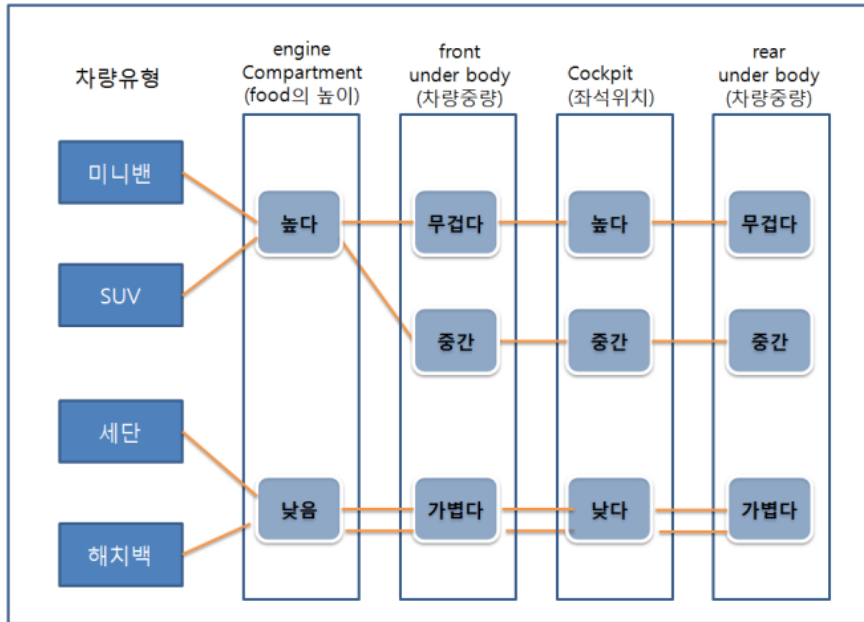
조달 동향	목적
조달기업 압축	집중구매, 대량생산으로 비용절감 추진 조달기업의 철저한 품질관리
현지조달(글로벌 조달) 촉진	설비와 재료의 현지화로 비용절감 현지 조달로 리드타임 단축 현지조달 비율을 높여 글로벌 조달을 추진함으로써 리스크 분산
부품의 표준화 및 모듈화	품종 수를 대폭 삭감하는 한편 1모듈 당 생산량을 확대하여 양산효과를 극대화하여 비용을 삭감함

〈그림1〉 Toyota New Global Architecture (TNGA)의 개념도



- 도요타자동차는 새로운 설계사상으로 ‘Toyota New Global Architecture(TNGA)’를 천명한 바 있음
 - TNGA는 다른 차종간에 부품과 유니트를 공용화함으로써 개발 효율화와 원가 절감을 실현하는 것임
- 닛산자동차는 글로벌 조달을 추진하면서 2015년까지 일본에서 생산하는 부품의 비율을 16%(2011년은 35%)로 낮출 계획임
 - 해외생산은 재료를 포함해서 2015년까지 현지 조달을 100%를 목표로 하고 있음
 - 물류비용을 포함하고 있는 부품을 추출하여 근접지역에서의 조달을 촉진해 나갈 방침임
 - 부품회사에 대해 부품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닛산공장 내 혹은 인접지역에 공장을 입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린지역 진출을 유도할 계획임

〈그림2〉 닛산 CMF(Common Module Family)개념도



- 또한 르노 · 닛산그룹 차원에서 부품(모듈) 품종 수를 대폭 삭감하고, 1모듈 당 생산량을 확대하여 양산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을 제시했음
- 또한 2013년 이후부터 신형차량설계기술인 ‘닛산CMF(Common Module Family)’을 차량개발에 도입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자동차의 차종을 뛰어넘는 부품공용화가 가능해지면서 비용절감에 효과를 보고 있음
- 위에서 언급함 CMF는 자동차를 ‘engine compartment’, ‘cockpit’, ‘front under body’, ‘rear under body’의 4개의 모듈로 구분한 후, 각 모듈에 변형이 가능하게 하여, 이들을 조합해서 자동차 설계를 하는 것을 의미함
- 혼다자동차는 2010년 시점에서 2013년을

목표로 부품별 공급기업을 최대 절반으로 집약하여 조달지역을 일본, 미국, 유럽에서 신흥국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었음

- 그 이후 양산효과를 높여 조달비용을 약 10% 줄이고 철저한 품질관리 체제를 정리해 나가고 있음
- 2012년에는 시빅, CR-V, 어코드의 3차종에 대해 배기량이 다른 엔진을 탑재할 수 있도록 기본설계를 변경하여 차대를 통합하여 부품을 공통화했음
- 또한 그 이후에도 부품 한 종류 당 발주 수량을 낮춰 양산에 따른 비용절감을 도모해 나가고 있는 상황임

- 일본을 대표하는 Teir1업체인 덴소는 2009년에 전사횡단조직인 ‘DP-EM(DENSO Project for Emerging Markets)실’을 설치했음
- 이 부서는 현지에 적합한 최적의 품질을

〈표2〉 코스트 하프(cost half) 개요

추진항목	개요
최적기능	수요 조사, 경합조사를 바탕으로 기능과 성능을 압축함
최적품질	시장요구를 충족하는 품질성능으로 완화
최적생산	현지공정에 적합한 제조하기 쉬운 구조
현지화추진	소재 및 설비의 현지조달, 현지설비의 유효활용

실현하기 위해 개발, 조달, 품질 등 부품 설계에서 제조공정까지의 전면적인 개선을 실시하고 있음

- 또한 중장기 경영전략으로 설계에서 생산까지를 근본적으로 수정하여 ‘저비용 기술’을 새로운 기술 분야로 확립하는 ‘코스트 하프(cost half)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 이 활동은 (1)최적기능, (2)최적품질, (3)최적생산, (4)현지화를 추진함으로써 제품기술의 차별화로 수익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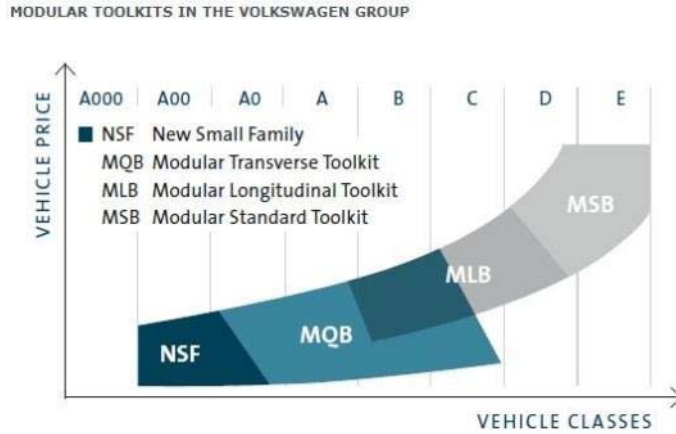
2) 해외 주요 소재 · 부품 수요업체의 조달 방침 및 동향

- 폭스바겐은 유럽과 신흥국에서 조달방침을 각기 다른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유럽의 생산거점에서는 독일에서 부품을 조달하고, 중국 등의 신흥국 시장에서는 설계도면과 부품 샘플을 제공하면서 현재의 공급업체를 육성하는 것을 현지조달의 기본으로 삼고 있음
 - 독일 각 공장에서 2011년에 조달한 총금액은 245억 유로이며, 그 중 약70%가 독일 국내 공급업체로부터 조달한 것임
 - 독일 국내에서 조달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제화를 중심으로 한 독자노선은 앞으로도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임

- 폭스바겐 역시 일본 국내 자동차업체와 비슷하게 다른 차종 간의 대규모 부품 공통화를 추진하고 있음
 - 폭스바겐인 일찍이 지난 2012년 2월에 새로운 공통플랫폼 ‘MQB’를 발표했음
 - 지금까지 각각의 자동차 유형에 맞게 플랫폼을 준비하고 이것을 횡적으로 다른 차종에 적용했었음
 - 그러나 MQB는 플랫폼을 몇 개의 모듈로 분할하여, 이것을 조합함으로써 다른 클래스의 자동차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MQB 도입으로 특히 Audi A3에서 부품비용과 설비투자비용을 낮추는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한편 또 다른 세계적인 Teir1업체인 보쉬는 자동차업체의 발주량 확대에 따른 비용 삭감 움직임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음
 - 전체 조달하는 분량 중에서 자사가 선택한 우량부품업체로부터의 조달비율을 약 50%까지 끌어올려 집중발주를 함으로써 비용절감을 도모할 방침임

〈그림3〉 폭스바겐의 Modular Toolkits 전략의 개요



5. 소재 · 부품기업의 새로운 사업기회

-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국내외 제조업체의 조달방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부품공통화와 모듈화 그리고 집중구매임
 - 부품공통화와 모듈화는 제품의 설계사상과도 관계가 있지만 자동차의 차종을 뛰어넘어 플랫폼을 공유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음
 - 이로 인해 개발공정 수와 신차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산업기반이 약한 신흥국에서도 신속하게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등 단순한 비용절감에 머물지 않는 사업혁신을 도모하고 있음
- 집중구매는 리콜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단점이 있지만 공급업체를 선별해 나가는 방향은 틀림없이 진전되고 있음
 - 동일본대지진과 태국에서 발생한 홍수 등의 영향과 교훈을 바탕으로 점차 일본에서만 조달 가능한 온라인 부품은 사라져 가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소재 · 부품기업이 사업기회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언급하는 것과 같은 생산효율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1) 대량생산 사업

- 소재 · 부품분야에서 대량생산을 하는 사업모델은 일본 국내거점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생산거점을 확보하는 글로벌 조달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질 것으로 전망됨
 - 해외진출 수단으로는 위험을 동반하게 되는 직접투자뿐 아니라 파트너기업에게 라이선스를 제공하거나 위탁생산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단 계약을 할 때는 변호사나 변리사 등 해당분야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고, 최소한 기술유출 방지대책을 포함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함
 - 로열티 회수방법은 여전히 중국이나 인도 등의 신흥국에서는 문제가 발생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전에 회수위험을 고

려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함

- 중장기적으로는 국내외에서 각기 다른 비즈니스모델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대량생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해외생산을 추진하는 한편 국내에서는 다품종소량생산과 신규 사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내와 국외가 동일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높은 수준의 가격지배력이 있는 사업이 아닌 한, 해외에 진출하는 순간부터 국내거래에도 해외가격을 적용받게 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임

2) 다품종소량 사업

- 다품종소량을 생산하는 사업은 일본 국내 시장에서의 생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보임
 - 소재 · 부품 분야 중에서 다품종을 소량으로 생산하는 사업은 점진적으로 강해지는 비용절감 압박을 극복해야 함
 - 뿐만 아니라 짧은 기간의 납기를 지키면서 철저한 애프터서비스하기 위해 고객 가까이에서 입지하는 근접성을 활용한 장점을 최대한 살린다면 국내시장에서의 생존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다품종소량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항상 영업확대를 위해 해외시장 동향을 주시하고 있어야 할 것임
 - 홈페이지를 외국어로 작성하는 것은 최소한의 조건이 될 것이며, 정부기관의 해외전시회 등을 이용하여 자사기술의 정보발신을 꾸준히 해야 함
 - 국내에 거점을 두면서 해외를 포함한 광

범위한 시장에서 적절한 일을 모아오는 지혜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 소량의 주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IT경영 등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동일 업종뿐 아니라 이업종과의 협업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자사의 능력을 초과하는 주문도 공동으로 수수하는 체제를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함

3) 극소량 특화 사업

- 고객의 제품개발 단계에서부터 지원하는 비즈니스에 중점을 두는 소재 · 부품 업체의 경우에는 규모는 작지만 특수한 분야의 상대적 경쟁력을 확실하게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연구소와 같은 R&D부서를 만들고 고객과 함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마케팅 전략을 추진해야 함
- 3D프린터가 기존의 제조업 그 자체를 크게 바꿔놓고 있는 급변하는 기술적 사업 환경 변화에 주목해야 할 것임
 - 이미 제조하는 방법으로 널리 활용되던 금형이 점차 필요 없어지는 분야가 증가하고 있고, 고도의 설계능력이 없더라도 단기간에 간편하게 물건을 만드는 것이 가능해졌음
- 소재 · 부품산업은 이러한 기술적 사업환경 변화를 위협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관련 분야에 진입해야 할 것임
 - 소재 · 부품산업은 특히 중요한 보안부품을 취급하는 고객이 안심하고 발주할 수 있는 비즈니스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임. 끝.

신흥국과의 통화스와프 적극 추진해야

**“미국 금리인상에 글로벌 경제 혼돈
상대적 엔화 약세도 수출에 영향
신흥국과의 수출활로 더 넓혀야”**

이종윤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최근 세계 경제는 미국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 인상 충격파에 출렁대고 있다. Fed는 지난 16일 통화정책 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현행 연 0~0.25% 수준인 연방기금금리를 0.25~0.5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9년6개월 만이다.

미국은 2008년에 불거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로(0)금리와 더불어 대대적인 양적 완화정책을 구사해 4조 5,000억달러(약 5,296조원)를 풀었다. 그러다가 미국 경제가 정상화하면서 비정상적인 양적 완화를 중단하고 이번에 기준금리도 인상하는 등 금융정책의 정상화를 꾀하고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미국 경제회복세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방증하지만 그동안의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정책으로 인해 해외로 대거 유출됐던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되돌아가는 ‘달러 환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신흥국들의 경제활동은 달러유출 사태로 인한 국제 유동성 부족으로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일부 신흥국은 급격한 외국인 자본 이탈

과 자국 통화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금리 인상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깊은 침체의 늪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국면을 어떻게 돌파해야 할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전에 분명히 지적해야 할 것은 미국의 통화정책이 국제통화국으로서의 적절성을 잃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 자국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통화를 무제한으로 풀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을지 모르지만 국제통화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지닌 입장에서 볼 때는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여하튼 최근의 국제금융질서가 이러하니 대외의존성이 높은 한국 경제로서는 특단의 대응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 침체와 엔저로 인해 11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는 수출을 살리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무엇보다도 신흥국과의 통화스와프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과 같이 국제통화국들과의 교역은 기존대로 국제통화로 하면 된다. 다만 국제통화국이 아닌 주요 신흥통상국들과는 신속히 통화스와프

를 체결, 우리 원화와 그들 통화로 거래하는 이원적 접근이 요구된다. 한국과 무역 거래를 하는 주요 신흥국 사이에는 서로 거래하고 싶은 상품이 존재한다. 다만 이런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거래수단, 즉 달러의 부족이 문제다. 달러 대체수단으로 한국의 원화와 그들의 통화를 교환해 거래를 하면 문제가 안 된다. 가령 그들 국가의 통화가 달러부족으로 인해 평가절하됐다고 한다면 한국으로서는 오히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성사시킬 수가 있다.

한국 경제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사태전개에서 본 것과 같이 이들 국가가 일시적인 달러부족으로 인해 통화가치가 하락한다고 해도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국제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머지않아 정상화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통화를 받은 한국 기업으로서는 오히려 큰 이익을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신흥국과의 통화스와프이든 직접 그들의 통화를 주고받든, 한국으로서는 하등 손해날 것이 없는 거래이므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제통상질서가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거래방식을 한국 수출증대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화폐는 거래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쌀 상품과 쌀 상품이 부등가교환이 아닌 이상 적절한 결제수단을 찾아내 적극적으로 거래하는 것이 대외의존적인 한국 경제로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겠다.

[동향보고]

일본 경제 동향 _ 2015년 11월

(GDP 600조엔 달성 대책)

I. 일본 경제 지표

구 분		2013	2014	2015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경기동향지수 (일치지수, 2010=100)		-	-	-	-	-	113.1	112.2	111.9*	-
GDP증가율(연율, %)		1.6	△0.1	4.5	-1.2(p)	△0.8	-			
국내투자	민간설비투자	66.0	69.5	20.4	16.1	17.2	-			
	(조엔)									
	공공투자	23.0	24.5	7.2	4.7	5.8	-			
해외직접투자(조엔)		13.2	12.6	3.5	3.7	3.6	1.1	1.3	1.2	-
소비자물가										
	전기비	0.4	2.6	△0.3	0.2	0.0	0.0	0.0	0.0	-
상승율(%)										
	전년동기비	0.4	2.6	2.1	0.1	△0.1	0.0	△0.1	△0.1	-
실업율(%)		4.0	3.6	3.5	3.3	3.4	3.3	3.4	3.4	-
수출(조엔)		69.8	73.1	18.9	18.8	19.0	6.7	5.9	6.4	6.5
수입(조엔)		81.3	85.9	20.4	19.1	20.0	6.9	6.5	6.5	6.4
무역수지(조엔)		△11.5	△12.8	△1.4	△0.3	△1.0	△0.3	△0.6	△0.1	0.1
경상수지(조엔)		3.3	2.6	4.2	3.8	5.0	1.8	1.7	1.5	-
환율	달러	97.7	105.8	119.1	121.4	122.3	123.2	123.2	120.2	120.1
	원화(100엔)	1,123	996	923.3	905	957	927	958	986	956
금리(10년물, %)		0.72	0.55	0.34	0.40	0.395	0.44	0.38	0.36	0.31
주가(닛케이)		13,651	15,460	18,226	20,058	19,474	20,373	19,919	17,944	18,374

주: (p)는 1차 속보치 *는 속보치, 자료: 일본 내각부, 재무성, 총무성, 후생노동성,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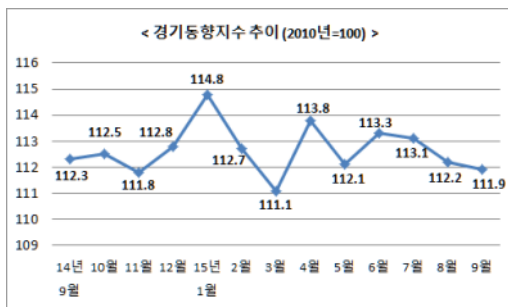
- (경기판단) 경기 담보상태 지속
 - '15.9월 경기동향지수(2010년=100)는 111.9로 전월비 0.3p 하락
- (소비자물가) 소비자물가상승률 4개월 연속 제자리
 - '15.9월 전월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0%
- (무역수지) 무역수지는 7개월 만에 1,115억 엔 흑자로 반전
 - '15.10월 수출은 6조 5,440억 엔, 수입은 6조 4,325억 엔
- (환율) 120엔대 방어
 - '15.10월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 평균치는 120.1 엔
 - * '15.10월 엔화의 대원화 환율 평균치는 100엔당 956원으로 전월비 3.0% 엔저·원고

II. 최근 일본 경제동향 및 전망

1. 경기 담보상태 지속

□ (경기기조 판단)

- 중국 등 신흥국의 경기감속 리스크로 투자의 신중세가 견지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의 담보상태가 지속
- 일본 내각부가 11월 6일 발표한 9월 경기동향지수(일치지수)는 111.9로 3개월 연속 하락
- 일치지수를 구성하는 10개 항목 중 5개 지표가 악화된 가운데, 중소기업 출하와 소매 판매 관련 지표가 저조



자료 : 내각부

- 이에 따라 일본 내각부의 경기 기조판단도 4개월째 담보상태 유지

□ (전 망)

- GDP가 2분기와 3분기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4분기에는 소비의 회복으로 소폭의 플러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나 불확실성 내지는 리스크도 만만치 않음
- 중국 경기의 회복여부가 관건으로 수출

이 증가하지 않으면 설비투자도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음

- 최근 프랑스에서 발생한 테러가 확산되는 경우, 세계경제의 저성장 리스크는 그만큼 커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관측
- 수개월 후 경기전망을 나타내는 경기선행지수도 전월비 2.1p 하락한 103.5로 2개월 연속 악화
- 현재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기업수익과 고용의 호조가 중국경제의 감속 영향에 얼마나 버티어낼 수 있느냐가 향후 경기향방에 관건

〈GDP〉

- '15.3분기 GDP 성장률 -0.8%, 2분기 연속 마이너스

- 일본 내각부가 11월 16일 발표한 2015.3분기 실질 GDP(속보치)성장률은 전기비 -0.2%, 연율 환산 -0.8%로 연율 -0.7%였던 2분기에 이어 연속 마이너스

- 세계경제에 대한 불투명한 전망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보류함에 따라 설비투자가 2분기 연속 감소한 것이 주된 요인

- 기업의 설비투자는 전기비 1.3% 감소, 2분기 이후 마이너스폭이 0.1%p 확대

- 8월 중국발 세계적인 주가하락 등으로 인한 기업 심리의 악화로 계획 중인 설비투자를 보류함에 따라, 기계설비의 개체나 신축 등을 위한 투자가 부진

- 소비와 수출은 증가하였으나 투자의 부진을 만회하기에는 역부족

- 소비는 전기비 0.5% 증가, 2분기 만에 플러스

〈일본의 실질GDP 성장률(%)〉

구 분	2013	2014	2014				2015		
			1-3월	4-6월	7-9월	10-12월	1-3월	4-6월	7-9월
전기비			1.2	△2.0	△0.3	0.3	1.1	△0.2	△0.2
전기비연율	1.6	△0.1	4.7	△7.7	△1.1	1.2	4.6	△0.7	△0.8
전년동기비			2.4	△0.4	△1.4	△0.9	△0.8	1.0	1.0

자료: 내각부, (p)는 2차 속보치

- 금년 여름 흑자로 에어컨과 여름의류 등의 판매가 증가한 외에 대형 연휴를 이용한 여행, 외식 등 서비스 소비도 활발
- 상품·서비스의 수출은 2분기 만에 증가로 반전, 전기비 2.6% 증가
 - 중국과 대아시아 수출은 부진한 반면, 구미지역에 대한 수출이 상승세
 - 그러나 수량기준으로는 세계경제의 감속영향으로 모든 지역에 대한 수출이 감소
- 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가 GDP를 전기비 0.3% 떨어트림에 따라, 아베노믹스 등장 이후 일본 경기를 지탱해온 내수의 효과가 약해지고 있음

〈국내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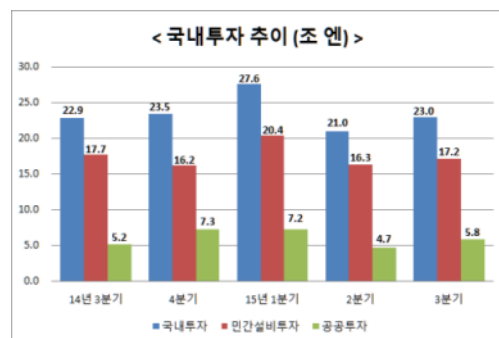
- '15.3분기 국내투자 23조엔으로 GDP의 18.8%
 - '15.3분기 국내투자(민간설비투자+공공투자: 명목기준)규모는 전기비 10.5% 증가한 23.0조엔으로 GDP의 18.8%

□ (민간설비투자)

- '15.3분기 민간설비투자는 명목기준으로 전기비 7.0% 증가한 17.2조엔, 국내투자

의 74.8%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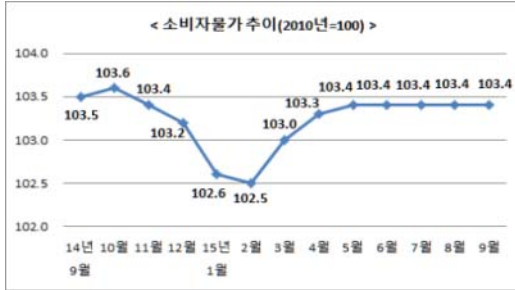
- 최근 예상밖의 중국경제의 감속으로 기업들의 설비투자 보류 움직임이 확산
 - 설비투자의 공급 측 통계인 9월 자본재 출하지수가 전월비 1.8% 감소
- 그러나 일본은행의 9월 단관에 의하면 2015년도 대기업/전산업의 설비투자계획은 전년도 대비 10.9% 증가, 6월 조사시에 비해 상향수정
 - '15.9월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기계수주액(선박, 전력을 제외한 민간수요)도 전월비 4.6% 증가, 4분기에는 2.9% 증가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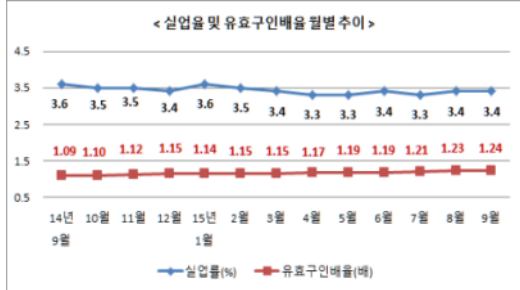
자료: 내각부

□ (공공투자)

- '15.3분기 공공투자는 명목기준으로 22.7%



자료 : 총무성



자료 : 후생노동성

증가한 5.8조엔으로 국내투자의 25.2%를 차지

- 그러나 '15.3분기 실질 공공투자는 전년도 추가경정예산의 효과가 감소됨에 따라 0.3% 감소

〈소비자물가〉

- '15.9월 소비자물가 4개월 연속 제자리 걸음
 - '15.9월 소비자물가지수(생선·식품을 제외한 코어 CPI)는 전월과 같은 103.4로 4개월 연속 0.0%
 -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상승율도 전월과 같은 -0.1%
 -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전기요금 가스요금, 에너지 품목의 가격이 하락한 데 기인
 - 그러나 일본은행은 에너지를 제외한 소

비자물가는 상승기조에 있다고 보고, 추가 금융완화를 보류

- 앞으로 에너지 가격의 하락폭 축소와 함께 소비자물가의 상승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실업률〉

- 고용사정의 개선경향 지속
 - '15.9월 완전 실업률은 3.4%로 전월과 같은 수준
 - 의료복지 분야의 취업자 수는 증가한 반면, 제조업 분야의 취업자 수는 감소
 - 남성 실업률은 3.6%로 상승한 반면, 여성 실업률은 3.1%로 하락
 - 유효구인배율도 상승세 지속
 - 15.9월 유효구인배율은 1.24배로 전월보

〈2015년 10월 일본의 수출입 (조엔, %)〉

	2015.9월			2015.10월			2015.1-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기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수출	6.4	0.6	9.1	6.5	-2.1	2.0	63.3	5.5
수입	6.5	-11.1	1.3	6.4	-13.4	-1.5	65.9	-7.6
수지	-0.1	-88.1	-80.0	0.1	-	-	-2.6	136.3

자료 : 재무성

〈2015년 10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출 (억 엔, %)〉

순위	품목	2015.9월			2015.10월			2015.1~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1	자동차	11,018	7.6	28.5	11,207	10.4	1.7	98,132	10.7
2	반도체 등 전자부품	3,613	8.5	6.6	3,435	0.8	-4.9	33,149	8.8
3	자동차부품	2,972	-1.3	14.7	3,085	-4.4	3.8	28,948	0.9
4	철강	2,890	-17.0	-1.3	2,864	-17.3	-0.9	31,342	-4.0
5	원동기	2,151	5.1	20.0	2,205	-3.5	2.5	21,673	4.4

자료 : 재무성

- 다 0.01p 상승, 23년 8개월 만에 최고 수준
- 일본 총무성은 고용시장의 개선경향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에서 5,396억 엔으로 축소된 한편, 對 미국 무역흑자는 전월의 6,618억 엔에서 6,662억 엔으로 확대

2. 무역적자 7개월 만에 흑자

- (종합) 무역수지 1,115억 엔 흑자로 반전
 - '15.10월 무역수지는 1,115억 엔 흑자로 전월의 1,145억 엔 적자에서 크게 반전
 - 무역흑자는 7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수입의 감소가 이에 기여
 - 對 중국 무역적자는 전월의 7,301억 엔

- (수출) '15.10월 수출, 금액·물량 모두 증가
 - '15.10월 수출은 6조 5,440억 엔으로 전월비 2.0% 증가, 증가폭은 전월의 9.1%보다 둔화됨
 - 전년 동월비로는 2.1% 감소
 - 수출물량도 전월비 3.1% 증가, 전년 동월대비로는 4.6% 감소
 - 앞으로 중국경제의 감속 등 리스크는 있음

〈2015년 10월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수출 (억 엔, %)〉

순위	국가	2015.9월			2015.10월			2015.1~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1	미국	12,790	10.4	12.6	13,482	6.3	5.4	126,403	14.5
2	중국	11,139	-3.5	4.7	11,846	-3.6	6.3	110,154	0.5
3	ASEAN	9,572	-0.6	5.5	9,796	-4.3	2.3	97,970	7.7
4	EU	6,821	5.1	14.6	7,189	5.4	5.4	65,972	5.1
5	한국	4,357	-7.5	3.9	4,392	-8.0	0.8	45,232	1.1
6	대만	3,611	6.7	-2.2	3,771	-1.6	4.4	37,387	7.2

자료 : 일본 재무성

〈2015년 10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입 (억 엔, %)〉

순위	품목	2015.9월			2015.10월			2015.1~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1	원유	6,376	-43.7	-16.6	5,475	-49.2	-14.1	64,695	-39.6
2	액화천연가스	4,162	-32.4	0.3	3,570	-42.4	-14.2	43,671	-24.5
3	통신기	3,558	-6.5	103.7	3,429	-1.6	-3.7	21,212	14.2
4	의류 · 동부속품	3,904	4.2	13.2	3,150	-7.3	-19.3	25,557	6.8
5	의약품	1,950	-1.6	-32.2	2,742	43.7	40.6	23,058	22.6

자료 : 일본 재무성

나 미국과 유럽 등의 경기회복으로 수출은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 수출액 기준으로 5대 수출 품목은 자동차, 반도체 등 전자부품, 자동차부품, 철강, 원동기기 순으로 전월과 비교하여, 과학광학기기 대신 원동기가 포함
- 자동차부품과 자동차, 원동기의 수출은 증가
- 반도체 등 전자부품과 철강의 수출은 감소
- 주요 수출상대 지역 · 국가별로는 미국이 수출상대국 순위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모두 수출이 전월보다 증가

- 중국에 대한 수출증가폭이 전월비 6.3%로 가장 크고 이어 EU, 미국, 대만, ASEAN, 한국 순
- 對 한국 수출은 전월비 0.8% 증가
- (수입) '15.10월 수입도 금액 · 물량 모두 증가
- '15.10월 수입은 6조 4,325억 엔으로 전월비 1.5% 감소로 반전
- 전년 동월비로는 유가하락으로 감소폭이 13.4%로 전월보다 커짐

〈2015년 10월 일본의 주요 지역 · 국가별 수입 (억 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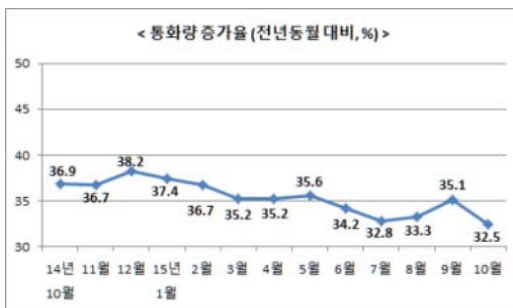
순위	국가	2015.9월			2015.10월			2015.1~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1	중국	18,439	0.9	19.0	17,242	-5.2	-6.5	145,494	-7.4
2	ASEAN	9,715	-4.2	4.0	9,961	-1.2	2.5	89,672	-11.2
3	EU	6,748	-3.5	-12.2	7,665	8.7	13.6	62,540	-8.1
4	미국	6,172	-0.1	-8.2	6,820	1.0	10.5	54,991	-12.1
5	호주	3,243	-22.8	-7.0	3,104	-23.9	-4.3	31,954	-24.3
8	한국	2,615	-8.7	4.2	2,552	-16.6	-2.4	24,491	-16.0

자료 : 일본 재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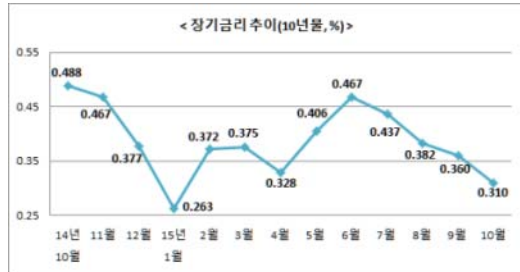


자료 : 일본경제신문

- 수입물량도 전월비 1.6% 감소, 전년 동월비로는 3.8% 감소
 - 경기부진이 수입물량 감소의 주된 요인
- 수입액 기준으로 5대 수입 품목은 원유, 액화천연가스, 통신기, 의류·동부속품, 의약품 순으로 전월과 비교하여, 반도체 등 전자부품 대신 의약품이 포함된 가운데, 의약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입이 감소
- 수입 감소 품목 중 의류·동부속품의 수입 감소폭이 전월비 -19.3%로 가장 크고 이어 액화천연가스, 원유, 통신기 순
- 5대 수입품목 중 유일한 수입증가 품목인 의약품은 40.6%의 큰폭으로 수입이 증가
- 주요 수입대상 지역·국가별로는 EU, 미국,



자료 : 일본은행



자료 : 일본상호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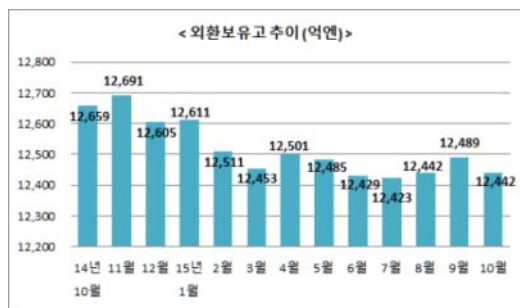
ASEAN으로부터의 수입은 증가한 반면, 중국, 호주,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감소

- 수입증가폭은 EU로부터의 수입이 13.6%로 가장 큰 반면, 수입 감소폭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6.5%로 가장 큼
-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월비 2.4% 감소

3. 엔저·고주가·저금리

□ (주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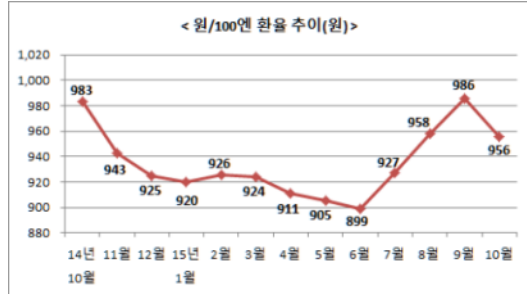
- '15.10월 평균 주가는 미국과 유럽의 주가 상승 영향으로 전월비 2.4% 상승한 18,374엔
- 11월 들어서도 상승세가 이어져 11월 24일 기준 19,925엔(이전 페이지로)



자료 : 재무성



자료 : 일본은행



자료 : 한국은행

□ (금 리)

- '15.10월 평균 10년 물 장기국채금리는 미국의 장기금리하락 영향으로 전월비 13.9% 하락한 0.31%
- 11월 들어서도 하락세가 이어져 11월 19일에는 0.295%까지 하락, 24일 기준 0.315%

□ (통화량)

- '15.10월 본원통화(머니터리베이스 기준), 통화량증가율은 일본은행의 자산매입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년 동월 대비 32.5%

□ (환 율)

- '15.10월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평균치는 전월비 0.1% 하락한 120.1엔(엔고)
- 11월 들어서는 미국의 금리인상 예상으로 엔저세로 반전, 11월 19일 기준 122.75엔
- 엔·달러 환율의 변동 폭에 관건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미일의 금융정책인데, 금년 중으로 미국금리의 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일본의 추가 금융완화가 이루어진다면 125엔 이상의 엔저도 가능함
- 그러나 미국의 금리인상은 매우 완만한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다, 현 시점에 서일본정부에서 일본은행의 적극적인 행동을 기대하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또 일본은행도 환율이나 주가가 안정되어있기 때문에 추가금융완화를 서두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125엔대 이상의 엔저는 예상하기 어려움

- '15.10월 엔화의 대 원화 환율 평균치는 100엔당 956원으로 전월의 986원에 비하여 3.0% 엔저·원고

4. 해외직접투자 감소 반전

□ (동향) 투자규모가 큰 아시아 및 북미 지역에 대한 투자 감소가 주된 원인

- '15년 9월 해외직접투자액은 12,385억 엔으로 전월비 8.0% 감소

□ (지역별) 對 아시아·북미 투자는 감소한 반면, 對 유럽·대양주 투자는 감소

- 對 북미, 對 미국 투자는 각각 전월비 3.7% 및 2.2% 감소
- 아시아 지역에 대한 직접투자는 6.2% 감소했으나 對 한국, 對 중국 투자는 증가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국제수지 기준, 억 엔, %)〉

		2013	2014	2015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금 액		131,946	125,929	10,023	20,757	6,223	11,399	13,457	12,385
증가율	전기비	34.9	-4.6	8.4	107.1	-70.0	83.2	18.1	-8.0
	전년동기비	34.9	-4.6	-51.3	177.1	-11.4	39.6	112.5	78.4

자료 : 일본 재무성

- 對 한국 투자는 전월비 151.3%의 큰 폭 증가

□ (특이점)

- 2015년 들어 일본기업의 해외기업 M&A가 가속화, 2015년 11월 9일까지의 시점

에서 매수총액이 10조 44억 엔으로 9년 만에 과거 최고를 갱신

- 해외 성장시장을 겨냥한 금융 및 물류 관련 일본 내수기업들의 공격적인 투자와 대형 M&A, 엔저에 따른 엔화환산 금액의 증가가 매수액 증가로 이어짐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해외직접투자 (국제수지 기준, 억 엔, %)〉

	2014년		2015.8월			2015.9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대세계	125,939	-4.6	13,457	18.1	112.5	12,385	-8.0	78.4
아시아	37,617	-4.3	4,256	-6.0	74.6	3,993	-6.2	4.1
중 국	7,150	-19.3	651	-15.0	27.9	707	8.6	1.3
한 국	3,328	3.7	74	-83.4	-72.3	186	151.3	-38.6
북 미	46,264	1.2	5,498	367.5	157.2	5,292	-3.7	390.5
미 국	44,365	3.3	5,274	361.4	187.1	5,126	-2.2	416.7
중남미	7,710	-22.1	1,415	21.0	41.1	305	-78.4	-75.9
유 럽	26,310	-16.7	1,922	-50.8	170.7	2,277	18.5	505.6
대양주	5,963	1.2	300	14.5	-	467	55.7	171.5
중 동	527	-	97	-1.0	273.1	39	-59.8	-64.9
아프리카	1,539	205.4	-30	-	-	101	-	-3.8

자료 : 일본 재무성

Ⅲ. 일본의 주요 정책

1. GDP 600조엔 달성 대책

- 新아베노믹스의 핵심인 GDP 600조 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본정부의 경제 재정자문회의가 책정한 구체적인 정책의 원안이 밝혀짐
- 11월 4일 경제재정자문회의가 新아베노믹스의 첫 번째 화살인「강한 경제」의 원안으로서 제안한 것임
- 일본정부는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한 후, 2016년 봄 발표예정인 「1억총활약」 플랜에 반영키로 함

① 골 자

- 일본의 GDP를 2014년도 491조 엔에서 2020년경까지 600조 엔으로 110조 엔 정도 늘림
- 이중 60조엔 이상을 현재 1%에 미치지 못한 잠재성장률을 2%정도로 높임으로써 충당하고, 나머지 50조엔 정도는 임금·물가 상승과 유가하락에 의한 교역조건 개선 등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이에 TPP를 수요, 공급 면에서 新아베노믹스의 기대효과를 높이는 정책수단으로 활용

② 주요 내용

1) 新아베노믹스의 전망

- 민간수요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실질 2%, 명목 3%정도를 상회하는 경제 성장을 목표로, 600조 엔 경제를 실현

- 실질 경제장률은 공급력을 강화함으로써 종래 1%이하의 잠재성장률을 2% 정도로 높임
 - 동시에 「1억총활약」을 위한 저출산·고령화 등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처하고, TPP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이에 필요한 수요를 개발
- 디플레이션에 적극 대처하고 교역조건 개선 등을 통하여 이제까지는 1% 정도로 상정한 디플레이터 상승률을 1% 이상으로 전망

2) GDP 600조엔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긴급 대응책

- 명목 GDP증가율을 상회하는 설비투자 촉진
 - 법인세 개혁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기업 수익이 확실하게 투자로 이어지도록 함
 - 제4차 산업혁명과 COP21(유엔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대응을 계기로 한 에너지 절약 강화
 - 에너지절약 대응투자 촉진
 - 규제개혁에 의한 민간기업의 투자기회 확대
- GDP(명목)성장률 등 경제동향을 고려한 계속적인 임금 및 최저임금 상승을 실현
 - 수익상황을 고려한 2015년 겨울상여금 인상
 - 2016년 봄 임금교섭을 위한 경영방침 설정
 - 노사교섭에 입각한 2016년 최저임금 인상
- 여성·청년·고령자(500만명 고용 촉진)

- 여성·청년의 정규화 지원, 다양한 근로 방식 촉진(워크라이프밸런스 개선 등)
 - 관민협력에 의한 여성의 활약을 위한 배우자공제·배우자 수당에 관한 방향성을 명확히 함
 - 고령자 고용을 촉진
 - 65세 이상까지 일할 수 있는 기업의 비율(2015년, 72.5%)을 높임
 - TPP를 축으로 한 강한 경제구조 구축
 - 高생산성기업으로의 노동이동 촉진
 - 글로벌 가치사슬(GVC)을 위한 투자촉진
 - 농업의 기업경영화, 농지집약화를 가속(농지중간관리기구 추진, 농지세제 활용)
 - 아태 지역의 광역FTA(한중일 FTA, RCEP, FTAAP), 일본·EU FTA 추진
 - 내외 관광객 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보틀넥 해소 목표를 명시(숙박시설, 교통접근성, 수용체제 등)과 그 실현을 위한 관민협력에 의한 하드·소프트 인프라 강화(관민펀드, PPP/PFI 등의 민간투자기법을 활용)
 - 관광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응
- 3) 新아베노믹스의 기대효과
- 강한 경제, 양육 지원, 사회보장 등 3개의 화살로 구성된 新아베노믹스는 수요, 공급의 여러 경로를 통해서 GDP 600조엔 달성에 대한 플러스효과를 기대
- (1) 공급측면
- 인구감소·고령화에 따른 노동투입의 마이너스 기여를 플러스로 유지
 -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응을 통한 취업기회 확대에 의해 노동력인구를 500만 명 정도 확대
 - 노동참가 등이 진전되지 않은 경우 2020년까지 400만 명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 생산성(TFP)상승률의 가속
 - 제4차 산업혁명, 산업·기업의 신진대사, 전문 인력투자, 규제개혁 등에 의한 생산성(TFP)의 가속화
 - TPP에 따른 低생산성기업으로부터 高생산성기업으로의 노동이동(자원재배분)에 의한 생산성 향상
 - 자본스톡의 증가
 - 법인세개혁의 조기완료, 기업수의 증가에 의한 투자증가
 - 성력화·에너지절약·환경대응투자 증가
- (2) 수요측면
-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응, 세출개혁을 통한 공공서비스·관련 서비스에 대한 잠재 수요 증가
 - 육아(0.3~1.5조 엔 정도), 간병(6~8조 엔), 건강증진·예방(2~5조 엔 정도)
 - 임금인상에 따른 소비증가
 - 임금인상이 명목GDP만큼 증가하는 경우, 소비도 60조 엔 증가
 - TPP 발효에 의한 수출증가 등(현행 목표와 실적)
 - 농수산물 수출 1조엔(2014년, 6,117억 엔)
 - 신칸센 등 인프라 수출 30조엔(2010년, 10조 엔)
 - 잠재력과 의욕 있는 중견·중소기업 등의 수출 2배(2010년, 3.7조 엔)
 - 대내직접투자잔고를 35조 엔으로 배증(2012년, 178조 엔)
 - 방일 외국인 소비 확대
 - 방일 외국인수 : 1,341만 명(2014년) →

3,000~4,000만 명 정도(2020년)

- 방일외국인소비액 : 2조 엔(2014년) → 7~10조 엔 정도(2020년)

○ 2020년 동경올림픽 관련 수요증가

- 개최 시까지 총 10조 엔 이상의 건설투자 증가

○ 기업이 보유한 현금·예금 등을 활용한 경제선순환 확대

- 현금·예금 등에 대한 케쉬아웃 비율을 중기적인 평균수준까지 높임으로써 10조 엔 이상의 설비투자 확대

③ 평가

○ 첫째, 노동력공급 확대와 함께 잠재성장률을 가장 높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바로 TPP임

- TPP에 의한 시장통합의 효과로 일본기업의 생산성이 상승

○ 둘째, 법인세 개혁을 빠른 시기에 실시하는데 더하여, 기업수익이 투자로 이어지도록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공급 면에서의 플러스 효과를 예상

- 10조 엔 이상의 설비투자 확대를 목표로, 법인실효세율을 빠른 시기에 20%대로 인하함으로써 신산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철폐하고 투자환경을 정비

○ 수요 측면에서는 임금이 일본정부의 성장률 목표(명목 3%)만큼 증가하는 경우 소비가 60조 엔 정도 증가할 것이라는 시산

○ 위와 같은 제언 내용은 현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전제나 예상이 많아 실현성에 대한 의문도 있음

○ 특히 앞으로 5년 정도로 GDP를 100조 엔 이상이나 늘리는 목표에 대해서는 비현실적이라는 비판도 있음

-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에 대한 신칸센 수출에서 중국에 패하는 등 인프라 수출이 최근 정체기미를 보이고 있어, 5년 동안 3배로 늘리는 전략은 현실성이 떨어짐

IV. 한일 경제관계 분석

1. 대일 무역적자 2개월 연속 증가

□ (종합)

○ '15.10월 대일무역적자는 전월비 41백만 달러 증가한 1,703백만 달러

- 적자폭은 9월에 이어 2개월 연속 확대

〈2015년 10월 對日 수출입 및 무역수지 (백만달러, %)〉

	2015.9월			2015.10월			2015.1~10월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대일 수출	2,043	-24.4	7.6	2,147	-25.7	5.1	21,508	-21.2
대일 수입	3,705	-21.1	7.0	3,850	-16.7	3.9	38,799	-13.7
무역 수지	-1,662	-330	96	-1,703	-27	41	-17,291	-384

자료 : 한국무역통계

〈2015년 10월 대일수출 10대 품목 (백만달러, %)〉

순위	품목명	2015.9월			2015.10월			2015.1-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총계	2,043	-24.4	7.6	2,147	-25.7	5.1	21,508	-21.2
1	광물성연료	308	-50.3	6.9	283	-48.5	-8.1	2,942	-48.0
2	철강제품	247	-22.5	3.8	257	-23.2	4.0	2,492	-27.2
3	전자부품	180	-4.3	-3.2	181	-8.9	0.6	1,924	-4.8
4	산업용전자제품	112	-43.4	27.3	159	-48.9	42.0	1,936	-16.6
5	정밀화학제품	122	-4.5	-4.0	114	-9.2	-6.6	1,201	-4.9
6	수송기계	100	2.3	23.5	111	-14.7	11.0	1,014	-6.2
7	석유화학제품	101	-23.7	9.8	86	-42.8	-14.9	1,119	-20.0
8	농산물	74	-11.2	1.4	82	-18.3	10.8	815	-11.2
9	기계요소공구·금형	80	-8.9	14.3	78	-22.3	-2.5	788	-17.2
8	금속광물	94	-16.7	-9.6	78	-23.1	-17.0	877	-5.7

자료 : 한국무역통계

- 대일 수출의존도는 전월의 4.7%에서 4.9%로 높아진 반면, 대일 수입의존도는 전월의 10.7%에서 10.5%로 낮아짐
- 수출과 수입을 합한 무역의 대일무역의존도는 전월의 7.3%에서 7.5%로 상승

□ (대일 수출)

- '15. 10월 대일 수출은 전월비 5.1% 증가, 2개월 연속 증가
- 동 기간 중 총수출 증가율 -0.1%, 일본의 수입증가율 -1.5%에 비하면 양호한 수준
- '15.10월 대일 수출 10대 품목은 전월과 변함이 없는 가운데 품목별 순위만 변동

	대일 수출증가율(%)		총수출증가율(%)		일본의 수입증가율(%)	
	전년동기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전월비
2015. 9월	-24.4	7.6	-8.4	12.0	-11.1	1.3
2015.10월	-25.7	5.1	-15.9	-0.1	-13.4	-1.5
2015.1-10월	-21.2	-	-7.6	-	-7.6	-

	대일 수입증가율(%)		총수입증가율(%)	
	전년동기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전월비
2015. 9월	-21.1	7.0	-21.8	-1.1
2015.10월	-16.7	3.9	-16.6	6.4
2015.1-10월	-13.7	-	-16.6	-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 실적 (신고기준, 건, 백만달러, %)〉

	2013년		2014		2014.4분기		2015.2분기		2015.3분기		2015.1~3분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일본의 대한투자	447 (-17.7)	2,690 (-40.8)	352 (21.3)	2,488 (-7.5)	103 (45.1)	850 (73.8)	84 (-0.2)	684 (136.7)	67 (-20.2)	222 (-67.5)	236 (-5.2)	1,195 (-27.0)
전체 외국인투자	2,607 (-9.1)	14,548 (-10.7)	2,463 (-5.6)	19,003 (30.6)	746 (32.5)	4,185 (-6.7)	742 (33.0)	5,316 (49.5)	624 (-15.9)	4,399 (-17.2)	1,924 (12.1)	13,270 (-11.1)

주 : () 내는 전기비 증가율,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직접투자통계

- 대일 수출 증가품목 중에서는 산업용전자제품의 증가폭이 42%로 가장 높고 이어 수송기계, 농산물, 철강제품, 전자부품 순으로 증가폭이 큼
- 대일 수출 감소품목 중에서는 금속광물의 감소폭이 -17.0%로 가장 크고 이어 석유화학제품, 광물성연료, 정밀화학제품, 기계요소공구·금형 순으로 감소폭이 큼

□ (대일 수입)

- '15. 10월 대일 수입도 전월비 3.9% 증가, 2개월 연속 증가
- 총수입 증가율 6.4%에 비하여 대일수입 증가율은 낮은 편
- '15.10월 대일 수입 10대 품목도 전월과 변함이 없는 가운데 일부 품목의 순위만 변동
- 대일 수입 증가품목 중에서는 정밀기계의 증가폭이 38.2%로 가장 크고, 이어 산업기계, 기초화학제품, 철강제품, 정밀화학제품, 플라스틱제품 순으로 증가폭이 큼
- 대일 수입 감소품목 중에서는 수송기계의 수입 감소폭이 -16.7%로 가장 크며, 이어 전자부품, 산업용전자제품 순으로 감소폭이 큼

2. 3분기 일본인 직접투자 크게 감소

□ (동향) '15.3분기 일본의 對韓직접투자 큰 폭의 감소로 반전

- '15.3분기 일본의 對韓 직접투자는 222백만 달러로 전기비 67.5% 감소
- 동 기간 중 전체 외국인투자의 감소폭 17.2%를 크게 상회
- '15.1~3분기 누계로도 전년동기비 27% 감소
- 건수로도 전기비 20.2% 감소
- 전분기의 급증(136.7%)반작용도 급감 반전에 영향

□ (한·일 기업간 협력 사례)

- 친환경 소재 바이오플라스틱 분야의 세계적인 선도기업인 일본의 ERI사가 1,500만 달러의 사업비를 투자해 2015년 말부터 바이오플라스틱 생산시설을 건립할 계획(2015.10.26. 한국일보)
- 일본 테이진그룹이 1600만 달러를 증액투자, 아산시에 위치한 공장 부지에 2차전지 분리막 특수코팅 생산 공장을 추가 건설, 무로후시제작소도 500만 달러를 투자해 천안5외투단지에 4960㎡ 규모의 생산 공장을 추가 건설(2015.10.14. 중도일보)

〈2015년 10월 대일 수입 10대 품목 (백만달러, %)〉

순위	품목명	2015.9월			2015.10월			2015.1~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총 계	3,705	-21.1	7.0	3,850	-16.7	3.9	38,799	-13.7
1	전자부품	590	-4.6	17.3	502	-21.1	-15.0	5,138	-3.8
2	철강제품	430	-39.2	-4.2	487	-29.1	13.3	4,928	-30.2
3	정밀화학제품	313	-11.6	4.7	347	-3.5	10.9	3,202	-11.3
4	석유화학제품	347	-42.4	-4.7	347	-34.0	0.0	4,069	-20.3
5	기초산업기계	273	-7.5	22.4	322	2.3	17.9	2,685	-9.0
6	산업용전자제품	223	2.0	22.5	211	-10.9	-5.4	2,141	-10.4
7	정밀기계	152	-12.4	-12.1	210	11.8	38.2	2,272	14.2
8	산업기계	167	-16.3	26.5	205	6.9	22.8	1,740	-12.9
9	플라스틱제품	190	-21.1	4.4	194	-18.8	2.1	1,955	-18.6
10	수송기계	215	-1.0	35.2	179	-19.4	-16.7	2,027	-3.0

자료 : 한국무역통계

□ (시사점)

- 최근 엔저를 배경으로 중국 등 해외투자기업들이 일본 국내로의 유턴사례가 늘고 있어 그 파급영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차별화된 대일 투자유치 노력이 필요
- 최근 일본기업들의 영업실적 개선에 따른 투자여력 확대도 대한투자의 플러스 요인

한일경제협회 신규가입 회원사

* 상임이사

**

■ (주)한영닉스



한영수 회장

- 주소 : 인천광역시 남구 길파로71번길 28
- URL : <http://kor.hynux.com/>
- 종업원수 : 265명
- 업종 : 제조(자동제어 계측분야)

* 일반회원사

**

■ (주)에스비씨케이



이승근 대표이사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31 길 12(논현동) 벤처캐슬 4,5,7층
- URL : <http://www.sbck.com/company>
- 종업원수 : 160명
- 업종 : 철강, 금속

■ (주)대성이노텍



황호균 부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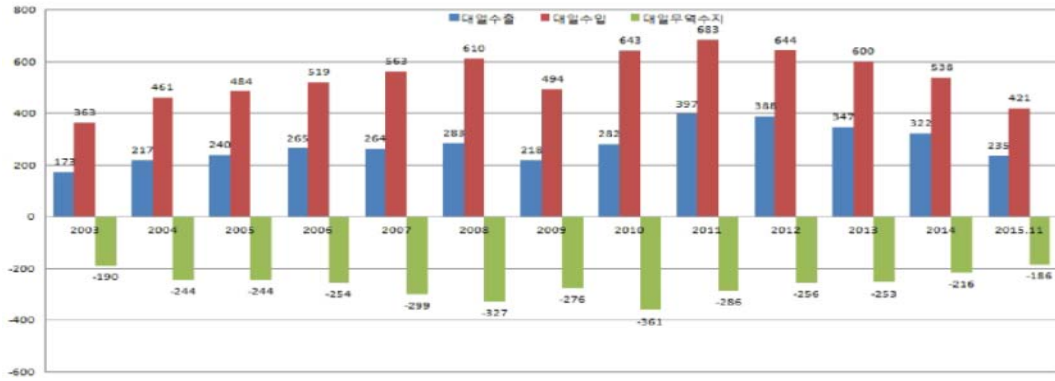
-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동오4길 11-15
- 종업원수 : 38명
- 업종 : 기계



박일순 대표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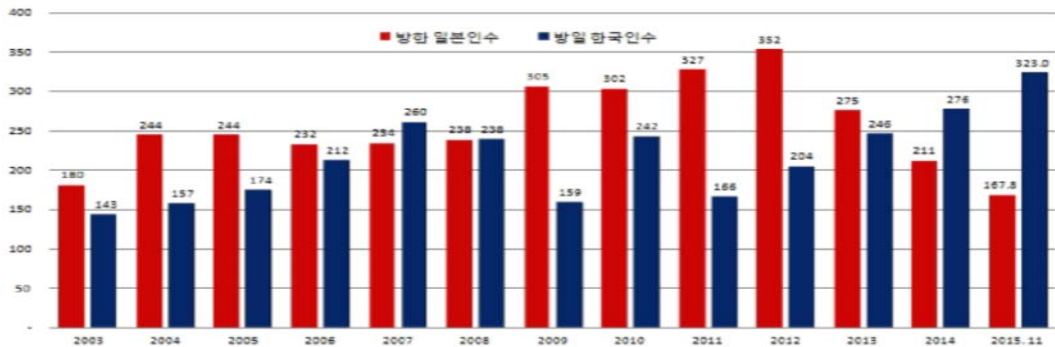
-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동오4길 11-15
- 종업원수 : 38명
- 업종 : 기계

한일 교역 현황 : 對 일본 연도별 수출입 실적('03~'15.11)/(단위 : 억불)



구 분	총수출 (A)	총수입 (B)	총교역액 (C=A+B)	대일수출 (D)	대일수입 (E)	총대일교역 (F=D+E)	대일수출비중 (G=D/A)	대일수입비중 (H=E/B)	대일무역수지 (I=D-E)
2003	1,938	1,788	3,726	173	363	536	8.9%	20.3%	-190
2004	2,538	2,245	4,783	217	461	678	8.5%	20.6%	-244
2005	2,844	2,612	5,456	240	484	724	8.4%	18.5%	-244
2006	3,255	3,094	6,348	265	519	785	8.2%	16.8%	-254
2007	3,715	3,568	7,283	264	563	826	7.1%	15.8%	-299
2008	4,220	4,353	8,573	283	610	891	6.7%	14.0%	-327
2009	3,635	3,231	6,866	218	494	712	6.0%	15.3%	-276
2010	4,664	4,252	8,916	282	643	925	6.4%	15.1%	-361
2011	5,552	5,244	10,796	397	683	1,080	7.2%	13.0%	-286
2012	5,479	5,196	10,675	388	644	1,032	7.1%	12.4%	-256
2013	5,596	5,156	10,752	347	600	947	6.2%	11.6%	-253
2014	5,726	5,255	10,981	322	538	860	5.6%	10.2%	-216
2015.11	4,845	4,013	8,858	235	421	656	4.9%	10.5%	-186

한일 인적교류 현황 : 對 일본 연도별 출입국 실적('03~'15.11)/(단위 : 만명)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11
방한 일본인수	180.3	244.3	244.0	232.0	221.6	235.8	303.2	300.4	327.0	351.8	274.7	211.0	167.8
방일 한국인수	142.7	156.9	173.9	211.7	260.1	238.3	158.7	241.5	165.8	204.4	245.6	275.5	322.6
계	323.0	401.2	417.9	443.7	481.7	474.1	461.9	541.9	492.8	556.2	520.3	486.5	490.4

출처: 한국무역협회, 한국관광공사, 일본정부관광국(JNTO)

회원가입안내

1. 개요

한일경제협회(www.kje.or.kr)는 자매기관인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www.kjc.or.kr)과 함께 한일 양국간 산업·기술협력을 촉진시키고 상호교류를 통하여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정립에 기여해 오고 있으며, 한일 양국 경제인의 교류 활동을 통해 상호이해와 상호신뢰 구축은 물론 활발한 인적교류 등 민간에 의한 경제외교 활동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 회원 자격

우리협회의 설립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고 한일 양국의 경제적 이해와 협조 및 친선을 위하여 유대를 갖고 있거나 그 필요성을 인식하는 국내외 개인, 법인 및 단체

3. 회원가입 및 회비

■ 회원가입 : 소정양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입회비와 연간회비를 납부하여야 함

■ 회비구분

구분		입회비	년회비
회장단회사	회 장	임원사에 대한 부과금액은 각 구분별 최저 금액으로, 개별협약을 통하여 조정	5,000만원
	부회장		2,000만원
	상임이사		1,000만원
일반회원사		10만원	300만원
			80만원

■ 입금계좌 : 우리은행 424-04-104432 한일경제협회

4. 중점사업

- 한일경제인회의 사업 (년 1회)
- 한일신산업무역회의 (년 1회)
- 한일 및 한중일 지역간 교류협력 사업 (한·큐슈, 한·호쿠리쿠, 한·황해경제교류)
- 한일청소년(고교생교류캠프)교류 사업
- 기타 한일양국 경제협력을 위한 사업(한일통상포럼, 업종별 교류회 등)
- 회원사 간담회 (주일대사초청간담회, SJC와의 간담회, 친선교류활동 등)

5. 회원사 특전

- 협회주최 및 자매기관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사업 참여 기회 제공
- 연구조사, 보고서 제공
- 협회 소식지 및 일본정보[지식리포트] 제공
- 일본기업 소개·비즈니스 정보·신기술동향 등의 일본기업정보 제공 (수시)
- 비즈니스 상담회, 기술지도, 일본연수 사업 참여

6.문의처

- 135-821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131 18-4 한일재단빌딩 4층
김정호 부장 (TEL: 02-3014-9887 E-mail : jhkim@kje.or.kr FAX : 02-3014-9899)

회원가입신청서

회사(기관)명			
대 표 자	(한글)	(한문)	
	(직위)	(생년월일)	년 월 일
주 소	㉠		
T E L	(대표)	(비서실)	
F A X	(대표)	(비서실)	
E - mail	(대표)	(비서실)	
U R L	http://	창 립 일	년 월 일
자산 총액	억원	자 본 금	억원
전년도매출액	억원	종업원수	명
주생산품			
업 종 ※ 해당되는 업종 앞에 하나만 ㄱ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업, 광업	기계	운수창고	
섬유, 의복	전기전자	통신업	
종이, 목재, 출판	전기장비	금융업(은행, 증권, 보험)	
화학	의료정밀	지주회사	
의약품	운수장비	법무, 회계	
고무, 플라스틱	전기가스	기타 서비스업	
비금속광물	건설업	경제단체, 공공기관 등	
철강, 금속	유통업	그 외 업종()	

<담당 관리부서>

부 서 명		TEL	
담 당 자	(성명)	FAX	
	(직위)	E-mail	

본인은 귀 협회의 설립취지와 사업에 동의하며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단체명) :

대표자 : ㉠

(사)한 일 경 제 협 회 귀중

※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시어 E-mail : jhkim@kje.or.kr) 송부 후, 첨부서류와 함께 우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135-821) 서울시 강남구 논현2동 112-15 한일재단빌딩 4층 (FAX : 02-3014-9899)

